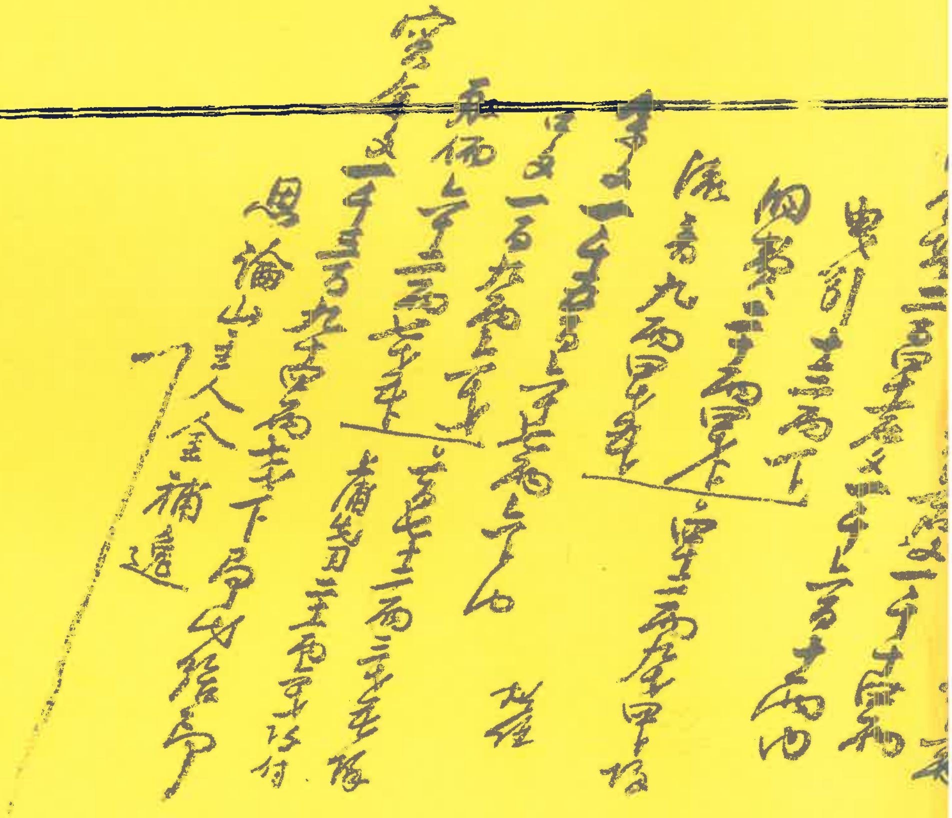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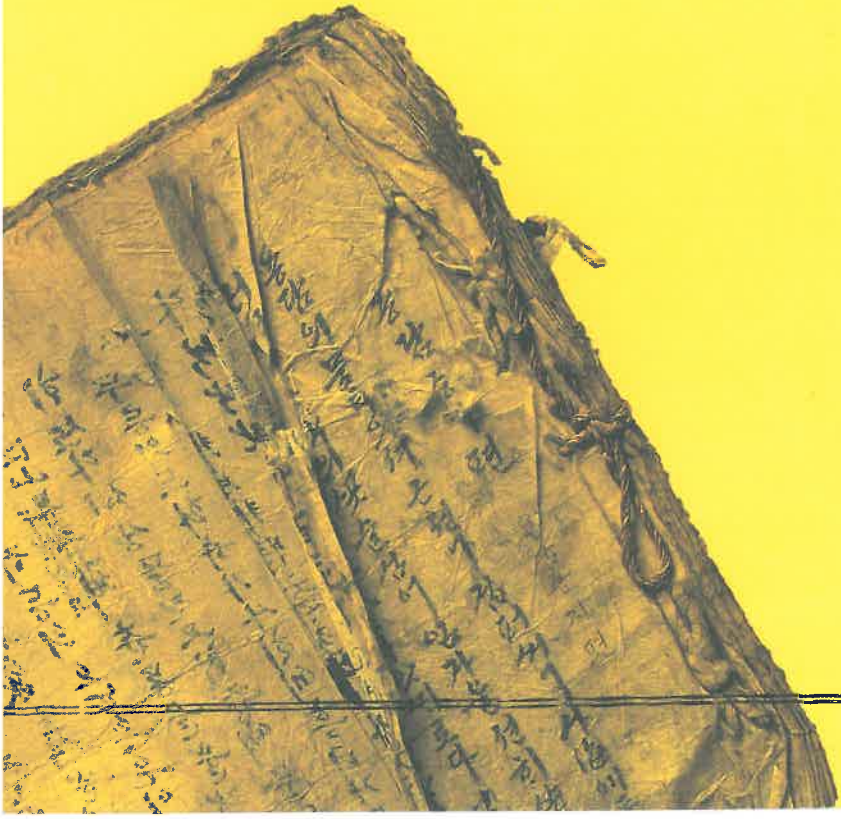
泰安地域 甲午東學農民革命 資料集

태안지역 갑오동학농민혁명 자료집

(사)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가-12





泰安地域 甲午東學農民革命 資料集

(사)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갑오동학농민혁명군의 큰 자취를 찾아서

1894년 제국주의 식민지 침탈에 대항하고, 봉건체제의 학정에 분연히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민족의 자존과 애국 애족 정신을 드높혔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제폭구민(除暴救民), 광제창생(廣濟蒼生)의 기치아래 결연한 의지로, 수많은 우리 지역 선조들이 분연히 일어나 싸우셨으나, 그 숭고한 뜻은 좌절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일제의 탄압속에서 이들의 위국단심은 사라지고, 흩어졌기에 111년이 지난 우리 지역 동학농민혁명군의 큰 자취와 유물은, 대부분 멸실되어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후손들이 정성껏 보관해 온 사료와 유물이 남아 있어, 그 당시의 잔혹상과 선조들의 혁명정신을 엿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 혁명정신을 이어 받아 오늘의 민주사회를 이끌어갈 정신적 기둥으로 삼아야할 시대적 상황에서, 제5회 군민의 날 축제를 계기로 사료와 유물을 전시하고, 자료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어 가고 있는 오늘까지 유물을 보관, 관리해 온 故 원암(源菴)·문원덕(文源德:전 천도교 태안교구장)선생님과 그 후손 문영식(文英植), 해설 원고를 집필해 주신 김영규(金榮圭 :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선생님 그리고 오늘의 전시회가 있도록 도와주신 안용환 유족회장,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문화원, 태안화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05. 4.

동학농민혁명 태안군기념사업회 **정 동 협**

■ **전시협조**

- 충청남도
- 태안군청
- 태안문화원
- 한국서부발전(주)

■ **전시자료 제공**

- 태안동학농민혁명 유족회

■ **일러두기**

- 자료의 설명문은 명칭, 년도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 크기 단위는 cm이고, 가로×세로 순으로 표기하였습니다.

목 차

發刊辭 … 3

泰安地域 東學農民革命 略史 … 6

展示資料 … 11

泰安地域 東學農民革命 關聯 遺蹟地 … 55

泰安地域 甲午 東學農民革命 殉國 參與者 名單 … 61

源菴 文源德先生의 行狀 … 69

泰安地域 東學農民革命軍 追悼 · 慰靈事業 발자취 … 71

泰安地域 東學農民革命 遺族會員 名單 … 72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약사

(사)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부회장 **배광모**

조선말기 1894년에 봉기한 갑오동학농민혁명을 동학란(東學亂), 또는 동학비란(東學匪亂), 동학변란(東學變亂)으로 이 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동적(東賊), 동학배(東學輩), 동비(東匪), 동학도배(東學徒輩) 등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4년 2월 9일에 국회에서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갑오년 당시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와 일제침략에 대항하다, 순국한 선열들이 110년 만에 역적이란 난(亂)의 누명을 벗고, 혁명(革命)으로 규정되어 명예가 회복이 되었다.

"난세에 충신과 영웅을 난다"는 말이 있다. 우리 충청도가 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청산리 전투의 화신 김좌진 장군, 그리고 1919년에 일어난 3 · 1운동의 33인의 한분인 만해 한용운 선사 같은 인물을 배출했다. 또한 우리 태안에는 33인중 한 분인 옥파(도호-默菴) 이종일 선생이 계시며, 특히 동학농민혁명에서도 태안지역에서 수천 명의 동학농민군들이 보국안민의 기치를 들고 요원의 불길처럼 타 올랐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을 사는 후손으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갑오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발자취를 책자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 태안지역의 자료를 모아, 우리 태안의 역사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하고자 한다.

◆ 태안(泰安)에 동학의 전래 과정

충청도 호서지방의 예포(禮包)와 덕포(德包)소속 북접 동학 농민군들은 태안군을 중심으로 아산(牙山) · 예산(禮山) · 당진(唐津) · 덕산(德山) · 홍성(洪城) · 서산(瑞山) 등지에서 동학 도소(東學都所)를 설치하고 기세를 떨치자, 이 지역의 수많은 민중들도 자진해서 동학에 입도하여 합류하였다. 태안 지역에 동학이 전래된 것은 1890년이었다.

서산 지곡면(地谷面)에서 최초로 최형순(崔亨淳)은 1890년 3월 16일에 동학 제2교조 해월 최시영선생을 방문하여 동학에 입도하였다.

최형순은 주로 서산 ·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충청도 전역을 무대로 동학교리를 포교하니, 뜻밖에도 호응이 좋았다. 자기 집에서 건너다보이는 이원면(梨園面) 포지리(浦地里)와 원북면(遠北面) 방갈리(防葛里)를 오가며 전교를 하여 동학의 뿌리를 내리는 토양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893년 12월 초순경에 상암 박희인(桑菴·朴熙寅)이 그릇장수로 변장하여 방갈리(가시내)에 들어와서 조운삼(曺雲三)을 입도 시키고, 다시 갈머리 마을에 들어가서 문장준(文章峻)과 문장로(文章魯) 문구석(文龜錫) 부자를 입도 시켰다. 그리고 조석헌(曺錫憲)은 그 다음 해인 1894년에 상암의 권유에 의하여 동학에 입도하고 그해 5월에 태안접주로 피임되었다.

태안지역에 동학이 전래된 이래 교세가 급성장할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농민들이 탐관오리의 가렴주구에 시달림을 받아 동학에 입도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태안 지역의 동학세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왕성했다,

특히 태안 지역에서도 원북면 방갈리와 이원면 포지리가 교세가 강했다. 그 것은 지리적 조건과 신망 있는 지도자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최형순에 의하여 입도한 동학교도와 박희인에 의해 입도한 교도들이 합세하여 방갈리의 동학세력은 날로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갈머리 문구석의 집과 가시내 조문필(曺文

必)의 집에서 교도들이 비밀리에 모여 동학 교리를 상암으로부터 직접 강의를 받았다. 이렇게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그 효과가 더욱 커져서 나날이 그 세력이 확대 되어 태안군 전역으로 그 교세가 불과 2~3년 동안에 큰 세력으로 뿌리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조석헌, 문장준의 역할이 돋보였다.

◆ 태안지역 동학의 전파

당시 태안 지역의 동학인들이 활동상을 찾아볼 수 있는 북접일지(北接日誌:曺錫憲歷史 · 文章峻歷史)가 있어, 여기에 참고로 "조석현 역사"를 기본으로 그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음력(陰曆)8월 25일(양력陽曆 9월 20일) 일요일 날씨(天氣)는 가랑비가 오다가 상오(上午) 8시에 그치다. 상오7시에 교인(教人) 네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고 같은 날 9시에 출발하여 경암장(慶菴丈)과 김수암(金秀菴) · 이연암(李然菴) 네 사람이 태안읍 홍기춘(洪企春) 집으로 해서 근서면(近西面 : 근흥면) 신동(新洞 : 두야리) 이순하(李順夏)집에서 점심을 먹고 화순리(和順里 : 수룡리) 문동하(文東夏)씨 집에 도착하여 저녁에 일반 교인 10여명이 모여 이야기하며 교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교세를 점검하고 조직하다.

음력8월 26일(양력9월 21일) 월요일 날씨(天氣) 상오 7시에 소낙비가 나리다가 하오 8시에 가랑비가 나리다. 9시 맑게 개임과 동시에 출발하여 이종덕(李鍾德)씨 집에 이르러 소주를 마시고 원서면(遠西面:소원면) 중방리(中方里 : 줌뱅이-신덕리2구) 이남영(李南榮) 집에 저녁에 도착하여 일반 교인 10여 명에게 설교하고 교세의 규모를 이야기 하다.

음력8월 27일(양력9월 22일) 화요일 날씨(天氣) 맑음. 상오 9시 출발 동면(同面) 율도리(栗島里 : 밤섬) 이용준(李容俊)씨 집에서 점심에 술을 마시고, 북이면(北二面 : 원북면) 동해리 정재영(鄭載英)씨, 고현으로 신곳리(薪串里:신두리) 신도휴(申道休)씨 집에서 저녁에 일반교인 40여명과 대산교수(大山教授) 안재한(安在漢)씨도 와서 경암장과 본인이 교리를 설명하고 교세를 점검하며 조직을 하다.

음력8월 28일(양력9월 23일) 수요일 날씨(天氣) 맑음. 상오 8시에 출발하여 관송 방축리(貫松防築里 : 현 원북면 반계리 방죽안 부락) 박윤화(朴倫和)씨 집에서 일반교인 30여명이 모여 교리를 강연해 주고 교세를 점검하고 조직을 하다.

음력8월 29일(양력9월24일) 목요일 날씨(天氣) 맑음. 상오 9시에 출발하여 이원면(梨園面) 청산동(青山洞: 현 원북면 청산리) 김홍석(金烘錫)씨 집에서 점심식사후 혼자 마방리(馬防里:현 원북면 마산리 바뱅이 부락) 김응칠(金應七)집에 가서 밤에는 일반교인 40여명이 모여 교리를 가르치고 교세를 조직, 점검하고 당면 과제를 이야기하다가 하루 밤을 쉬다.

음력8월 30일(양력9월 25일) 금요일 날씨(天氣) 맑음. 하오 1시에 중방리(中防里 : 현 소원면 신덕리 줌뱅이 부락) 이남영(李南榮) 집에서 유숙하다.

위 북접일지 기록과 같이 동학은 도처에서 전파되어 활동했으며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인여천(事人如天)- 즉,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과 같이 하라."라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유 평등 사상이었다. 농민들은 이 때가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억압 받고 핍박 받으며 살아온 민초들이 총궐기하여 잘못된 정치와 사회구조를 바로 잡으려 했던 순수한 농민혁명이었다.

충청도 서부 특히 내포(內浦)지역의 갑오동학농민혁명의 주된 기포지는 원북면 방갈리(현 태안화력발전소 부지)와 근흥면 수룡리에 있는 토성산 및 이원면 포지리 등이다.

이렇게 기포할 당위성을 발표하자, 징과 북을 치며 대나무 끝에 동학의 깃발을 꽂아 놓고 동학농민군들은 함성을 울렸다. 이곳에서 작전계획을 세우고 근서면(近西面) · 안흥면(安興面) 및 원일면(遠一面) · 원이면(遠二面) · 소근면(所斤面) 등지에서 출병한 600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 태안성 점령

그해 10월 1일 아침 태안군아를 에워싼 동학농민군들은 원북면 방갈리, 이원면 포지리, 근흥면 수룡리, 남면, 안면도 등지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을 비롯하여 군내 일원에서 모여든 일반 교도들까지 합쳐 그 무리 수천 명에 이르렀다. 이때 태안군아에 투옥된 동학 두목 30여명을 처형 직전에 무사히 구출하고 태안군수 신백희(申百熙)와 순무사 김경제(金景濟)를 즉석에서 처단하였다.

이렇게 태안성이 함락되어 동학농민군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급보를 들은 홍주에서 영병(營兵) 5백여 명이 급파되어 태안성을 수복하고 민심을 수습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폭정에

시달린 백성들의 민심을 잡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그 날 새벽 거의 같은 시각에 서산에서도 동학농민군이 관아를 점령하고 박정기(朴錠基)군수와 송봉훈(宋鳳勳)이방을 처치하고, 창고를 열어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강제로 수탈한 식량을 빈민들에게 골고루 분배했다고 한다.

◆ 해미(海美)와 신례원(新禮院) 전투

동학농민군들은 서산과 태안에서 승전하여 기세가 올라감에 따라 동학에 입도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학농민군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 기강이 해이되었을 때, 홍성군수 이승우(李勝宇)가 관군과 유회군(儒會軍) 수천 명과 신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3백여 명까지 이끌고 10월 11일 새벽에 예포대도소(禮包大都所)를 불시에 공격하였다. 이에 동학농민군들을 교전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패전하여 흩어지고 말았다. 이렇게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열세에 몰렸을 때 관군과 유회군의 기세가 올라가, 이번에는 유회군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관군과 일본군에 연합하여 동학교도를 처형하고, 가족까지 위해를 가하는데 앞장을 섰다. 이때 패주했던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모여, 이들과 싸우지 않으면 살길이 없고, 나라는 일본놈들의 수중에 들어가서 식민지로 전락할 것 이라는데 뜻을모아 다시 총궐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태안의 동! 학군들은 군사조직을 점검하고 대오를 편성한 뒤, 22일에는 군량미를 준비하여 1인당 7일분의 양식을 등에 짊어지고 태안을 출발하여 서산을 경유하여 이 곳 동학농민군과 합류하고 23일에는 해미면 귀밀리에서 잠시 진을 치다가 해미지역 동학농민군과 다시 병력을 보강하여 24일 오후 5시경 해미 승전곡에 이르렀을 때, 미리 잠복 중이던 관군 500명, 유회군 수천 명, 그리고 일본군 400여 명이 나타나 치열한 접전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 동학농민군의 승리로 끝났다. 그 동안 관군 등으로 부터 당한 수모와 정신적으로 무장된 동학농민군의 결사 항전의 결과였다.

이여서 동학농민군은 강행군하여 25일에는 당진의 면천읍에서 1박하고, 26일에 예산 신례원에서 진을 쳤으며, 충청남도 각 포에서 모여든 동학농민군의 수가 수만 명에 이르렀다. 이 때 홍성군수 이승우가 유회군의 장두(長頭)인 김덕경(金德景) 등 10여명이 지휘하는 유회군 4·5천명과 관군을 신례원 앞 빙현상봉(氷峴上峰)에서 10여 문의 대포와 총을 발사하며 동학농민군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이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여 적군으로부터 뺏은 무기를 사용하여 관군의 두목 6, 7명과 병사 7, 8백명을 사살하는 큰 전과를 올렸다.

이 신례원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고 10월 27일 예산군 역촌 뒷들(後坪)에서 1박하고, 그 다음날 28일에는 대신사(大神師) 탄신 기도일이라 덕산군 역촌후현(驛村後峴)에서 유진(留陣)하고 기도를 올린 다음, 곧 홍주성을 치기위해 출발했다.

◆ 홍주성(洪州城) 전투

1894년 10월 28일 동학농민군은 홍주성 문밖 향교촌 뒤편에 진을 치고 적군에게 노획한 신무기로 총공격을 개시했으나 관군 등 연합군은 완강하게 항전함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피아간 심리전이 계속되고, 이렇게 성 내외에서 서로가 퍼붓는 총 포탄이 터지는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화약 냄새는 코를 찔렀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전이 계속되는 동안, 동학농민군 수십 명이 살상됨으로서 사기가 떨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소모전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전략상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의 전황을 보고한 일본측 기록에 의하면,

"…10월 28일 오후 4시 동학농민군은 덕산가도 좌측의 고지를 점령하고 4시 25분에는 그 한 부대가 빙고치(현 홍성읍)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400m 밭두둑에 이르렀을 때 빙고치 위의 일본군은 몇 차례의 집중사격을 가하여 적 수명이 쓰러졌다. 적군은 주춤하다가 다시 전진해 왔다.

빙고치의 일본군은 중과부족으로 서문 좌측에 후퇴하여 접근해 오는 적을 사격했다. 북문의 일본군들은 덕산가도 서쪽에서 접근해 오는 고지의 적을 3회에 걸쳐 일제사격을 가했다. 적은 이 사격에 놀라 2대로 나누어 도로 동쪽 숲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때 북문의 홍주 관군이 대포를 쏘고 아울러 동북쪽에서 집중 사격하니 적군의 공격은 주춤하였다.

그런데 적군의 한 부대는 동문의 전방 600m 숲속에서 전진해 오며 방화하니 불길이 치솟자 성밖 100m까지 접근하며 총공격을 가해 왔다. 그리하여 온 병력을 동문으로 집결하여 이에 응전했다. 밤이 되자 적군은 더욱 맹렬하게 성밖 40m까지 대포를 끌고 와서 동

문에 난사하며 격전이 계속되다가 7시 30분경에 포성이 멈췄다."

두 차례의 전투에서 이미 대승을 거두고 사기가 충천해 있던 동학농민군으로서는 홍주성 점령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게다가 병력의 수도 많고 전투 경험도 있었으나, 신무기와 잘 훈련된 일본군에 패하고 말았다. 이 홍주성 전투는 결사적인 혈전이었으며 피아간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여 동문 밖과 숲 속에는 시체가 많이 쌓였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측 사료에 의하면 홍주성 전투에 참가했던 동학농민군은 약 3만명 내지 5만명이었으며 또한 전사자는 2백여 명이었다고 한다.

◆ 해미성(海美城) 전투

홍주성에서 패전한 동학농민군들은 11월 5일 해미성에 입성하여 11월 7일 새벽에 이두황(李斗璜)이 이끄는 관군과 싸우다 패하고 말았다. 이두황이 일락치(日落峙) 쪽에서 새벽에 기습해 옴으로서 접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일진일퇴의 격전이 하루 종일 계속되었다. 많은 동학농민군의 사상자가 속출하여 작전상 후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에 관군은 북쪽으로 패주하는 동학농민군을 추격하여 40여명을 사살하고 10여명을 생포하였다.

또한 4·5백여 명이 되는 다른 부대는 남쪽으로 후퇴하여 10여리 지점에 있는 저성리(豬城里)에 집결하였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대오를 점검하는 순간, 추격해 온 관군과 다시 접전이 벌어졌다.

이때 동학농민군은 상황이 불리함으로 부득이 서산의 매현(현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으로 후퇴하였다.

해미성 전투에서 패주하는 동학농민군은 가지고 있던 무기도 제대로 챙기지 못 한 채 도주하였다. 이는 당시의 매우 긴박한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당시 관군에게 빼앗긴 무기류는 다음과 같다.

불랑기(佛狼機) 11대, 대포 4문, 자포총(子砲銃) 22정, 천보총(千步銃) 10정, 조총(鳥銃) 43정, 창 85자루, 칼 9개, 대정(大鉦) 3개, 소쟁(小錚) 3개, 북(大鼓) 2개, 포환(砲丸) 130발, 장전(長箭) 4개, 연환(鉛丸) 6상자, 함초화약(陷硝火藥) 500근, 침수기(侵水器) 8개, 수연통(水煙桶) 4개, 말(馬) 8필, 당나귀(驢) 5필, 소 52두 등이었다고 전한다.

◆ 매현(梅峴) 전투

해미성 전투에서 패전한 동학농민군들은 11월 8일 서산 매현으로 철수하여,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동학농민군은 패전에서 오는 심리적 부담을 씻지 못한 채 조용히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관군이 이 곳까지 추격해 오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사주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관군은 바로 이런 허점을 노리고 있었다.

저녁 8시,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이두황이 이끄는 관군이 또 습격해 온 것이다. 갑자기 습격을 받은 동학농민군은 사력을 다하여 항전에 임했다. 이렇게 두어 시간쯤 접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동학농민군 쪽의 전세가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이 때 진중에서 화약이 폭발하여 천지를 진동케 하고 화약 연기가 앞을 가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피아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동학농민군은 이미 전세가 불리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간 연막을 이용하여 사방으로 도주했다.

이 매현 전투에서 관군에게 빼앗긴 동학농민군의 무기는 다음과 같다.

대포 1문, 천보총 7정, 조총 7정, 창 16자루, 광검(光劍) 1자루, 칼 1자루, 포란(砲卵) 1되, 쟁(錚) 4개 등이다.

동학농민군들은 매현 전투에서 참패하여 다시 재기할 여력도 없이 천추의 한을 품고 수 백명이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된 것이다.

충청 서부 일원 각 지역 전투에서 직접 진두지휘한 대표적인 인물은 다음과 같다. 태안 김병두(金秉斗), 안면도 주병도(朱炳道), 최동빈(崔東彬), 서산 장세화(張世華), 당진 박용태(朴容台), 김현구(金顯玖), 홍성 김주열(金周烈), 한규복(韓圭復), 면천 이창구(李昌九), 남포 추용(秋鏞), 신창 김경삼(金敬三), 곽원(郭元), 정태영(丁泰榮), 덕산 이종호(李鍾浩), 최병헌(崔秉憲) 등이다.

이렇게 홍주성 전투에서 대패한 동학농민군들은 해미와 매현에서 또 다시 패전하여 재기할 여력을 잃은 채 최후로 태안 백화산으로 피신하여 집결하였다.

◆ 백화산(白華山)의 참극

태안 백화산은 옛날부터 태안군의 진산이며, 성스러운 관음도량(觀音道場)으로 국보 제307호인 마애삼존불상(磨崖三

尊佛像)이 모셔져 있는 영산이고, 이 산은 태안팔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이러한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참혹했던 비극적인 현장이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곳 바로 이 산 기슭에 수많은 동학농민군들이 무참하게 학살되어 천추의 한이 서린 유서 깊은 교장바위가 있다.

당시 이 끔찍하고 잔인한 학살행위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도 외세 일본군을 끌어들여 동족을 살육했다는 사실은 천인공노할 일이다.

동학농민군은 패전하여 재기할 여력을 잃은 채 1894년 11월 중순경 최후로 백화산에 집결하였고 동짓달 설한풍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거나 뿔뿔이 해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록 진퇴양난으로 궁지에 몰렸을망정 동학농민군들은 관군과 일본군들에게 잡혀 죽으면 죽었지, 구차하게 살기위하여 아첨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의연하게 순국하셨다고 전한다.

예부터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패주하는 적군은 사살하지 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살기등등한 관군과 일본군은 혈안이 되어 미친 듯이 날뛰며 동학농민군 패잔병에 대한 소탕작전을 몇 달 동안 계속하여 전개하였다 한다.

마을마다 숨어 있는 동학농민군을 샅샅이 색출하여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총살하거나, 산 채로 생매장을 하고,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전한다.

특히 백화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교장바위)에서는 동학농민군 수백 명을 붙잡아다가 10여 명씩 포승으로 한 줄씩 묶어 목을 졸라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눈알이 빠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오고, 목이 잘린 시체가 쌓이거나 여기저기 흩어졌다. 관군과 일본군들은 시체를 일일이 헤쳐 보면서 혹 산 사람이 있으면 확인 사살했다고 한다.

이미 111년이 지난 과거사 그 현장을 직접 목격은 못했으나 전하는 말만 들어도 모골이 송연해 진다.

이곳에서 겨우 피신한 동학농민군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 산 북쪽 모래기재에서도 관군과 일본군의 복병들에 의해 동학농민군 수백 명이 학살되었고, 이 밖에도 태안여고 개울, 샘골 마을, 남문리 냇가, 정주내 등 여러 곳에서 잔인하게 살육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사람을 집에 가두고 방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교장바위는 선지피로 물들고 글자 그대로 시산혈해였다고 전한다. 이 교장바위 부근은 도살장을 방불할 정도로 처참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먼저 잔인하게 죽어가는 전우들의 모습을 보며, 자기 자신의 죽음 앞에 치를 떨었다. 죽는 것도 억울한데 외세의 힘을 빌려 동족상잔했다. 참으로 금수만도 못한 죄악을 범한 것이다.

그 당시 동학농민군들이 죽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는 소리가 산천이 진동했다고 전한다. 비극적인 이 참살 장소인 바위를 교장바위라고 후손들은 전하고 있다. 즉 목을 졸라 죽인다는 "교살(絞殺)"과 몽둥이로 때려죽인다는 "장살(杖殺)"을 줄여서 교장(絞杖)이라 하여 이 바위를 태안 사람들은 "교장바위"라고 이름 지어 현재까지 부르고 있다.

◆ 근흥 토성산(吐城山), 이원 사창3리 "목네미샘", 이원 관리 "통개"의 참극

백화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들은 근흥면 수룡리 토성산(吐城山)에 숨어들었다.

이에 때를 놓칠세라 하고, 관군과 일본군들은 동학농민군의 뿌리를 뽑기 위해 혁명에 가담자한 자를 철저히 색출하는데 주력했다. 기진맥진한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붙잡아다가 총 개머리로 머리를 내리쳐 잔인하게 죽이고 작두(斫刀)로 머리를 잘라서 산 아래로 내던져 집 추녀에 매달려 놓았다. 또 칼로 배를 찔러 내장을 뽑아 소나무와 향나무 가지에 매달기도 하고 혹은 생매장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머리를 잘라서 효수경중(梟首警衆)이라는 형벌로 장대에 매달아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만행을 저질었다고 한다.

그 당시 동학농민혁명군의 목을 자른 작두는 현재 천안독립기념관에 보존전시하고 있다. 일부 동학농민군들은 백화산에 숨어 있다가 관군과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아, 이원면 사창리 산속 또는 민가에 숨어 있다가 관군에 체포되어, 수백 명의 동학농민군이 작두로 목을 잘라 샘에 던졌다는 이원 사창3리에 "목네미샘"이 있다.

또한 사방으로 흩어져 관군의 경계망을 피해 숨어 있다가 관군과 유회군의 색출에 의하여 체포되어 백주에 78명의 동학농민군이 총살을 당한 이원면 관리 "통개"라는 곳이 있다.

展示資料

東經大全 동경대전 (21×2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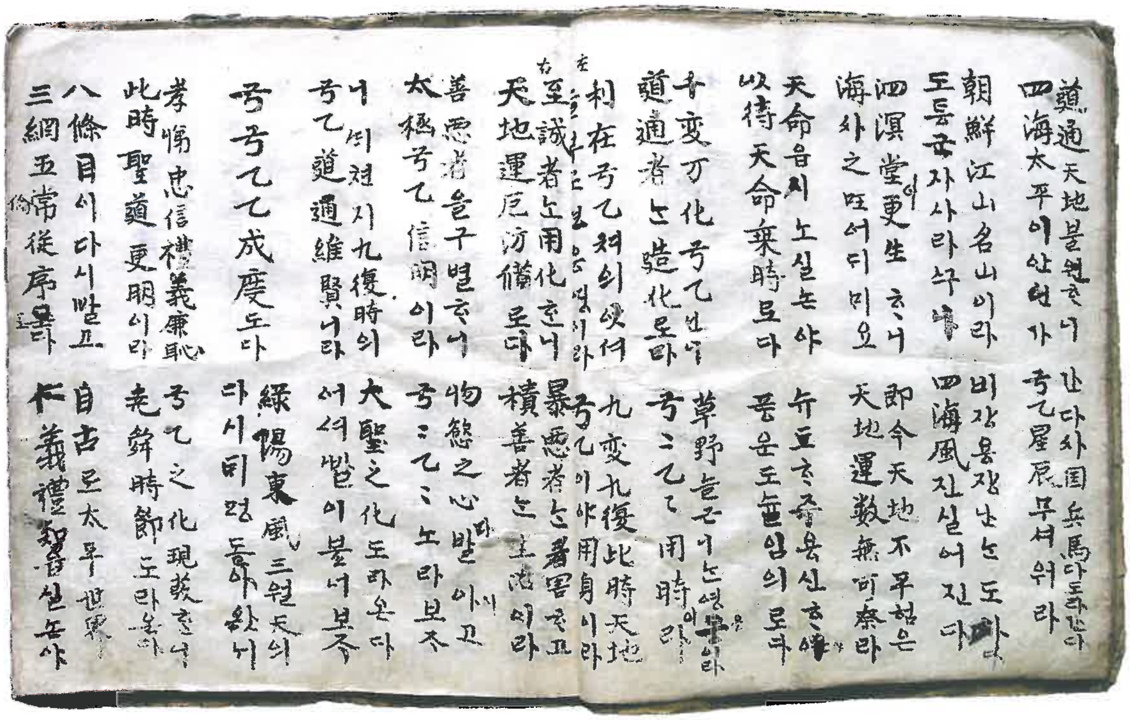
이 동경대전은 동학(東學)의 창시자 최제우(崔濟愚)가 저술한 동학의 경전(經典). 1880년 간행. 최제우는 인내천사상(人乃天思想)으로 동학을 창시 · 포교하다가 사도난정(邪道亂正)의 죄목으로 대구 장대(大邱將臺)에서 참형되었다. 1893년의 교조신원운동(教祖伸冤運動)은 이듬해에 동학혁명(東學革命) 발발의 계기가 되었다. 말기적 조짐을 나타내던 조선 후기의 사회상황 속에서 〈함지사지(陷地死地) 출생들아 보국안민(報國安民) 어찌할고〉라고 외친 최제우가 20년 고행끝에 얻은 것이 《동경대전》에 담겨 있는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장(不然其然章)〉 등이다. 이 책은 최제우가 저작한 것이기는 하나, 그의 언행은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부분도 있다. 이 책의 중심사상 내지 내용은 〈포덕문〉과 〈논학문〉이다. 〈포덕문〉에서 최제우는 역사를 ①자연에 대한 감사도 알지 못하던 우부우민(愚夫愚民)의 상고시대(上古時代)를 설명하고 ②경천명순천리(敬天命順天理)하던 요순성세(堯舜聖世)의 중고시대를 경모흠탄(敬慕欽歎)하고 ③천리천명(天理天命)을 순종치 않고 각자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근대의 시대로 나누어 보았다. 그는 동학의 출현은 역사적 필연 내지 사명이라고 보고, 이것은 자기의 자의로서가 아니라 상제(上帝)의 명교(命教)에 의해 자기가 태어나서 천명(天命)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논학문〉은 글자 그대로 학문을 논한 글로서 〈오심(吾心) 곧 여심(汝心)〉과 〈수심정기(守心正氣)〉와 또 문답식 축문해설이 그 중심을 이루는데, 내용은 〈한울님〉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울님을 위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인간이 어떤 경지에 도달한 것을 의미하므로 이의 태만을 경계하였다. 이 책에 흐르고 있는 기본 사상은 인간지상주의로 인격향상을 설한 것이다. 이의 요약은 〈경건한 마음가짐을 잃지 말라〉 〈신의를 생명같이 지켜라〉 등으로, 너무나 절실한 자각촉구와 자기신념이 전체에 흐르고 있다. 《용담유사(龍潭遺詞)》와 함께 동학교도들에게는 2대 경전이 되고 있으며, 한국사상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책이다.

*필사본으로 동학의 최초 전래당시 사용하던 경전이다. (태안수접주 낙암(樂菴) 문장로(文章魯) 선생 소장품)

龍潭遺詞 용담유사 (20.3×20.7×0.5㎝)

이 용담유사는 동학 창시자 최제우(崔濟愚)의 가사집. 1860년(哲宗 11)부터 4년에 걸쳐 포교를 목적으로 지은 9편 가사로 모두 한글로 되어 있다. 1860년에 지은 〈용담가(龍潭歌)〉 〈안심가(安心歌)〉 〈교훈가(敎訓歌)〉, 1861년에 지은 〈도수사(道修詞)〉 〈검결(劍訣)〉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1862년의 〈권학가(勸學歌)〉, 1863년의 〈도덕가(道德歌)〉 〈흥비가(興比歌)〉 등이 1881년 6월 충청북도 단양(丹陽) 여규덕(呂圭德)의 집에서 최시형(崔時亨)에 의해 처음 간행되었고, 93년과 1922년 각각 목판본으로 재간행되었는데 이때 〈검결〉은 정치적 이유로 간행되지 못했으며 지금도 전해지지 않는다. 내용은 서양세력이 동양을 침략해 들어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에 대항하기 위한 정신적 자세로서 동학을 내세운다는 것이 주를 이룬다. 최제우는 그의 후천개벽사상을 일반대중이나 부녀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가사체의 형식을 빌려 썼다. 《동경대전(東經大典)》과 함께 동학의 기본경전으로 꼽힌다.

*필사본(筆寫本)으로 태안지방 동학의 최초 전래된 당시 태안 수접주 낙암 문장로 선생께서 애독하시던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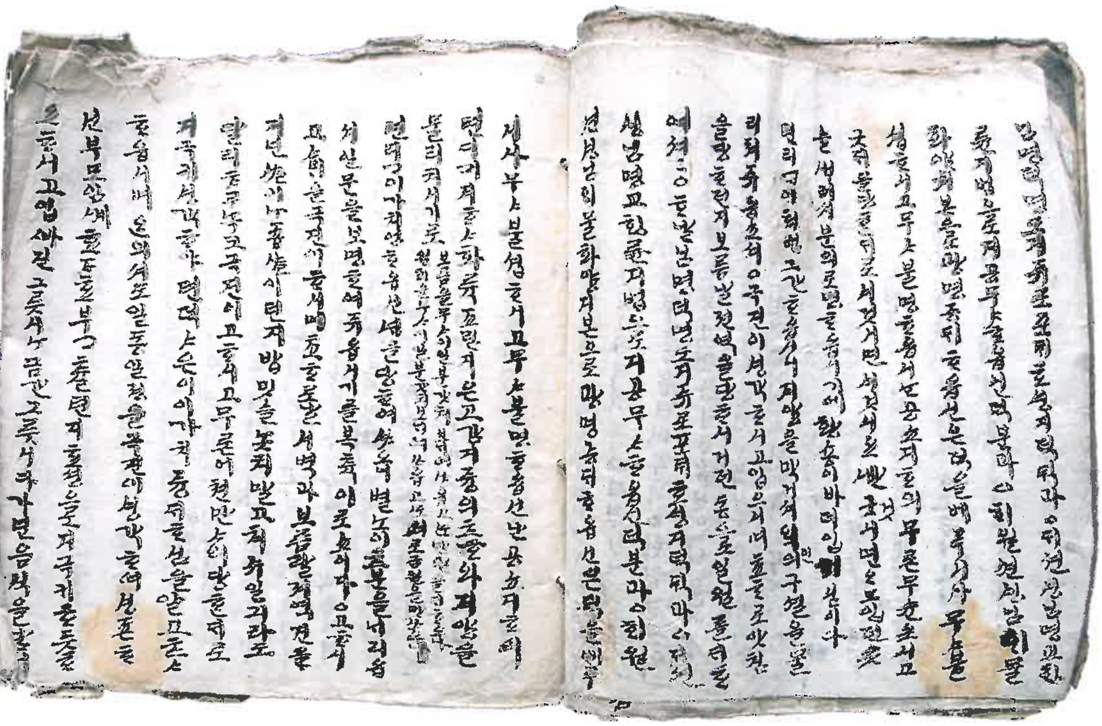
逢生活弓乙歌 봉생활궁을가 (21.5×23.3×0.3㎝)

이 궁을가는 동학교도들 사이에 널리 불러졌던 가사의 하나이다. 궁을가의 경우 가사체로 된 동학경전의 하나인 용담유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다양하게 전해 오고 있다. 아마도 궁을가는 수운 최제우 사후 동학의 지도자들이 지어 자신을 따르는 도인에게 남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궁을가의 내용 또한 지역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서도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여기서 보이는 궁을가는 답도가를 지은 충우주인(忠右主人)이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궁을(弓乙)에 내포한 뜻은 제1세교주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선생께서 저술한 동경대전 포덕문(布德文)에 "내게 신령한 부적이 있으니 그 약은 신선의 약이요. 그 형상은 태극이요. 또한 형상은 궁궁이니 나의 부적을 받아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구제하라" (吾有靈符, 其藥仙藥, 其形太極, 又形弓弓, 受我此符, 濟人疾病)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중에 영부(靈符)란 천지만물이 화생(化生)하여 우주에 나타난 근본원리를 상징하는 신령스러운 묘법(妙法)을 말하는데, 수은 최제우선생님이 재세시에 동학에 입도하여 많은 사람들이 독실하게 주문을 읽어 강령을 모시고 영부를 받아서 불에 살아서 물에 타 마시면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효험을 보았다고 한다.

*낙암 문장로 소장품



答道歌 답도가 (19×27×0.5㎝)

이 답도가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이후 동학도인들이 불렀던 송가(頌歌)의 일종으로 동학 1세 교주 최제우(崔濟愚)와 2세 교주 해월 최시형(崔時亨)의 은덕을 기리고 있다. 이 책의 1898년 5월 2일 기록된 것으로 충우주인(忠右主人)이 자신을 추종하는 동학교인에게 자주 외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표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답도가를 외우면 복축이 있다고 하는데 일종의 축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답도가는 유가(儒家)의 시전(詩傳), 기독교(基督教)의 찬송가(讚頌歌), 불가(佛家)의 게송(偈頌)과 같이 교리(教理)와 교조(教祖)를 찬양한 송가이다.

*낙암 문장로 소장품

曺錫憲 歷史 北接日誌 一號

조석헌 역사 북접일지 1호 (16.1×24.1×0.2㎝)

조석헌 역사는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충남 태안 파도 접주(波島接主)로 활동하였으며, 1924년 천도교 예산교구 종리사로 활동했던 조석헌(曺錫憲)이 기록한 것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908년 11월(음)에 정리한 〈초고본〉이 있고, 이를 정리한 1931년 개정본이 있다. 〈초고본〉을 보완하여 한글 표기를 한문으로 고쳐 지명과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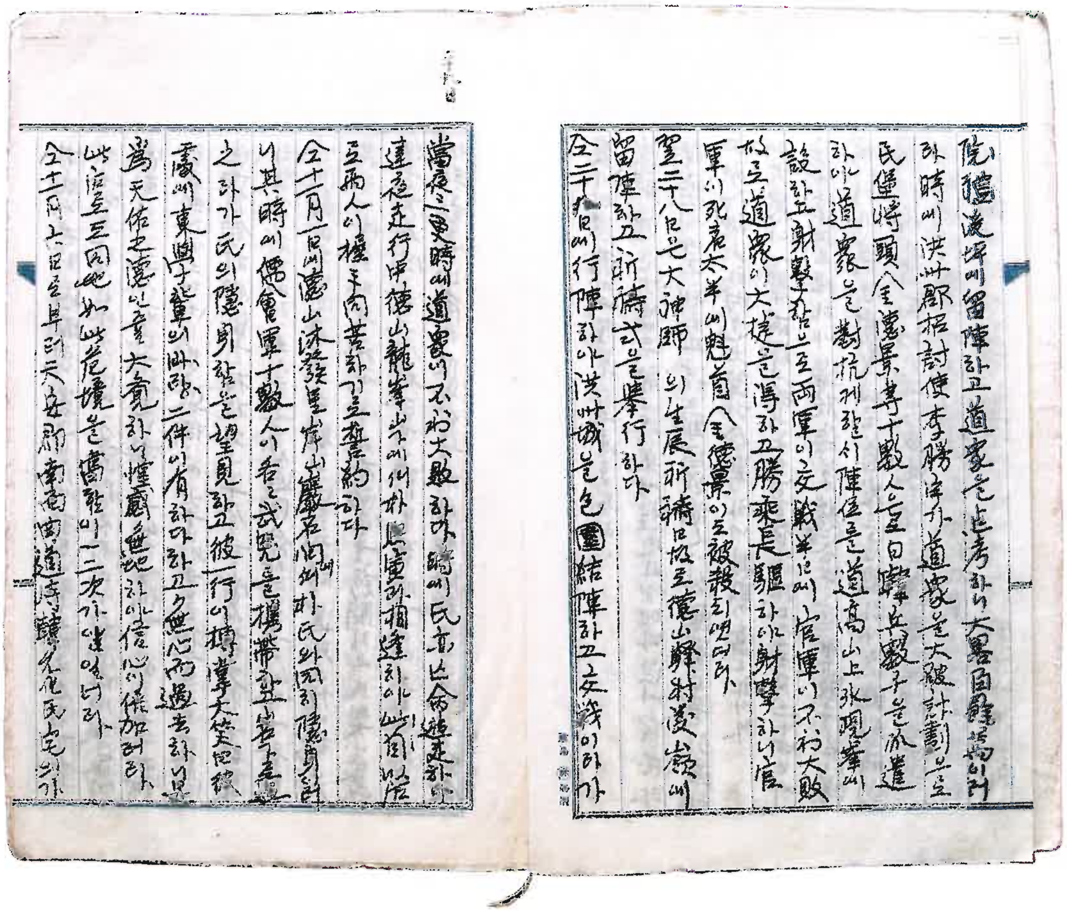
이 조석헌 역사는 1894년부터 1918년까지 필자가 경험한 사실을 정리한 것으로 주로 1894년 10월 태안 서산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이 기포(起包)한 과정과 여러 전투 사항을 비롯하여 1895년 이후 동학 2세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선생의 도피 과정, 동학지도부의 동학재건 활동, 1906년 이후 내포(內浦)지역의 천도교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895년 이후 해월 최시형의 도피과정은 어느 기록보다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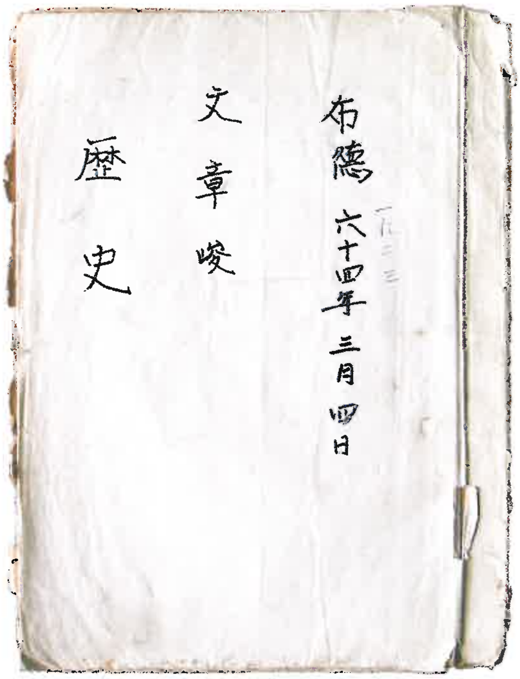
▶1908년 11월 기록한〈초고본〉

曺錫憲 歷史 北接日誌 二號

조석헌 역사 북접일지 2호 (16.5×22.8×1.4㎝)

1931년 재정리한 〈개정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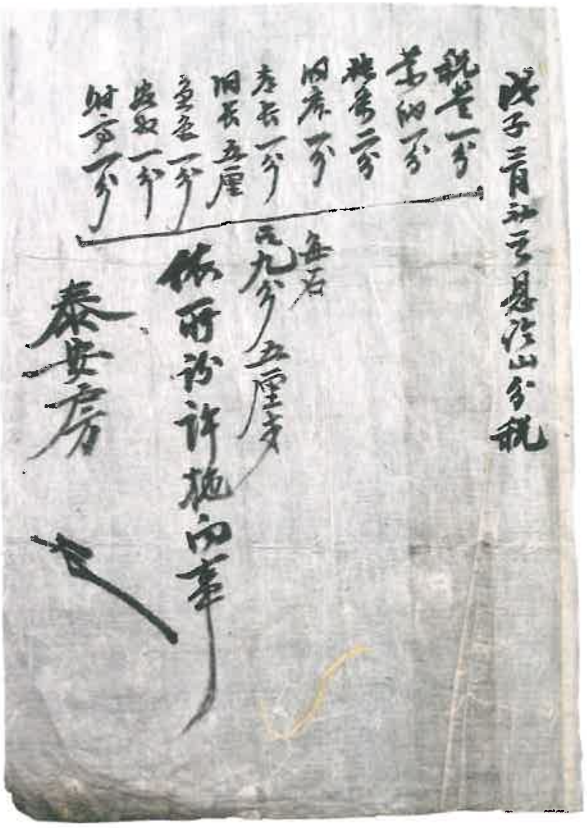


文章峻 歷史 北接日誌 三號

문장준 역사 북접일지 3호 (17×22.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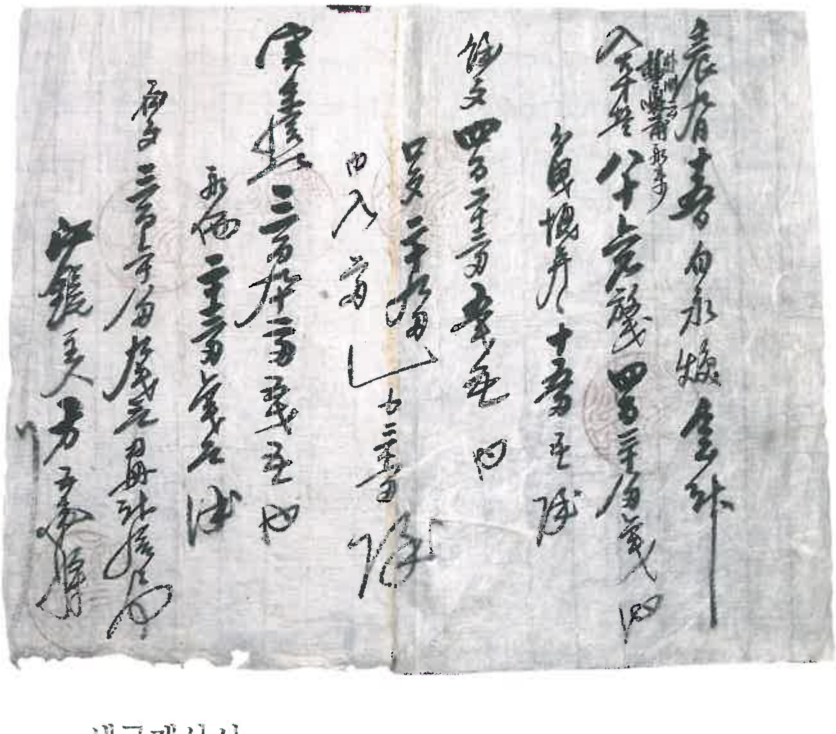
이 문장준 역사는 충남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에서 출생하여 동학 및 천도교의 지도자로 활동하였던 문장준(文章峻)이 1894년 9월부터 1923년까지 경험한 주요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이 기록은 조석헌역사와 더불어 충남 내포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즉 태안지방의 기포, 승전곡(勝戰谷) 전투, 신례원(新禮院) 전투, 홍주성(洪州城) 전투 등과 내포지역의 핵심지도자였던 상암(桑菴) 박희인(朴熙寅)에 대한 기록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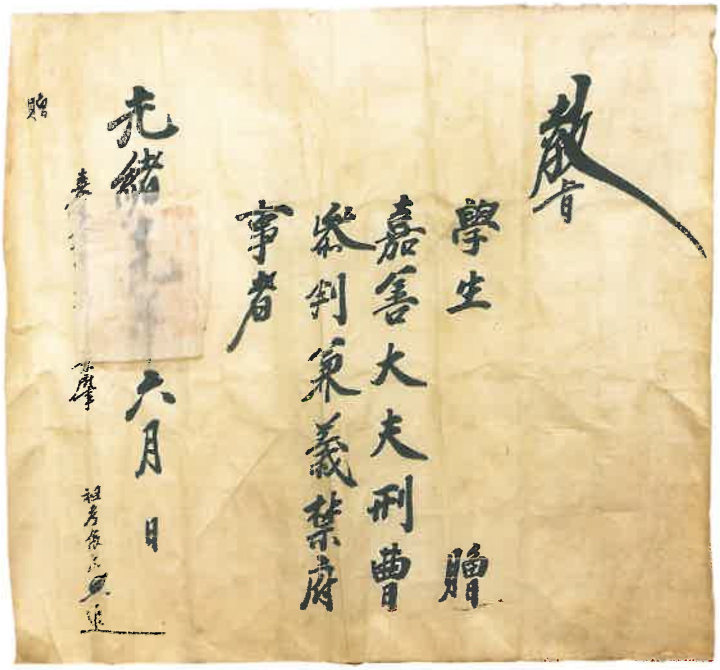
세금회계문서 (17.2×24.6㎝)

태안관아에서 세금을 배당한 문서
(戊子 : 1888. 3. 2)



세금계산서 (32×24.7㎝)

태안 백영환(白永煥) 이관에서 세금을 내고 받은 계산서(壬辰 : 1892. 9. 15)



教旨

學生 贈
嘉善大夫刑曹
參判兼義禁府
事者

光緒 六月 日

敎旨 一號 교지 1호 (57×52.5㎝)

癸巳(1893)년 무렵 매관매직(賣官賣職)했던 구 한말 부패한 관리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령장이다.(돈을 내고 이 교지에다 성명을 쓰면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도 바로 벼슬을 얻는 것이다.) 그 당시 조정에서는 궁핍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공명첩(空名帖)을 발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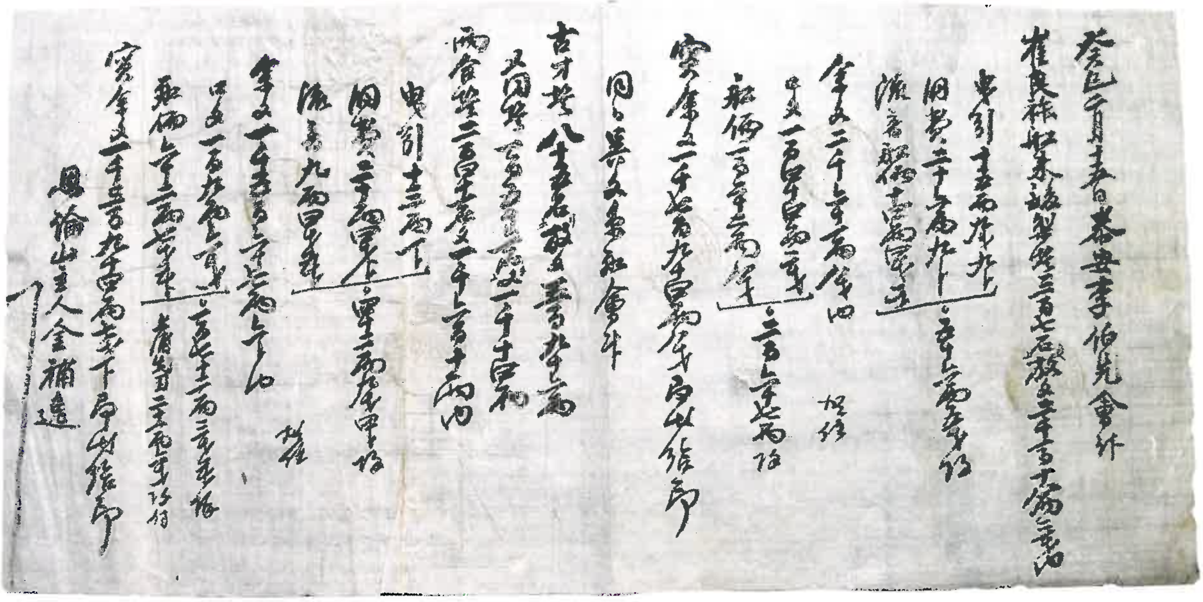
教旨

孺人 氏贈
貞夫人者

光緒 六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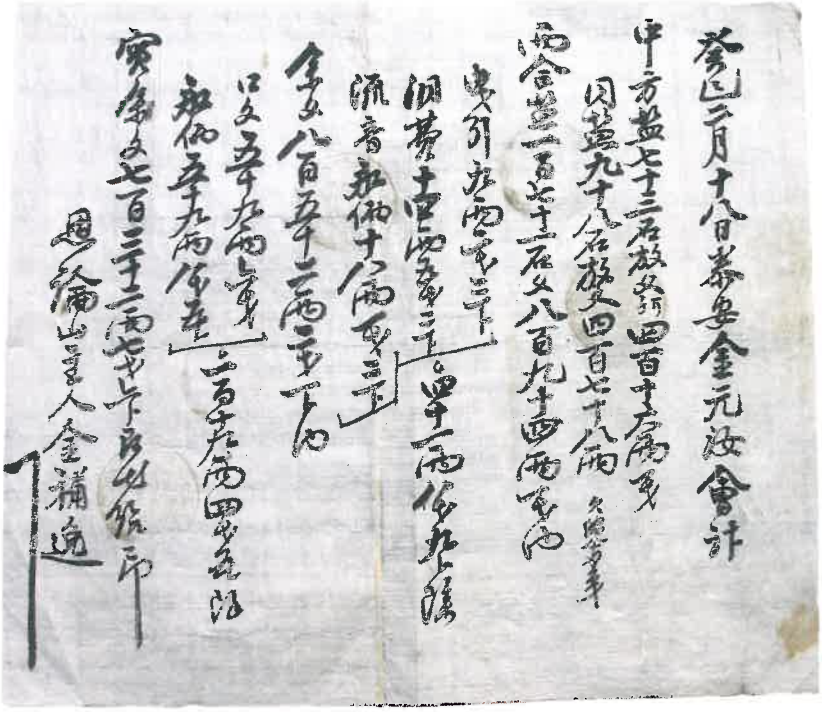
敎旨 二號 교지 2호 (57×52.5㎝)

이 교지는 남편이 돈을 주고 공명첩을 사게 되면 함께 교지를 받는 매관매직하던 문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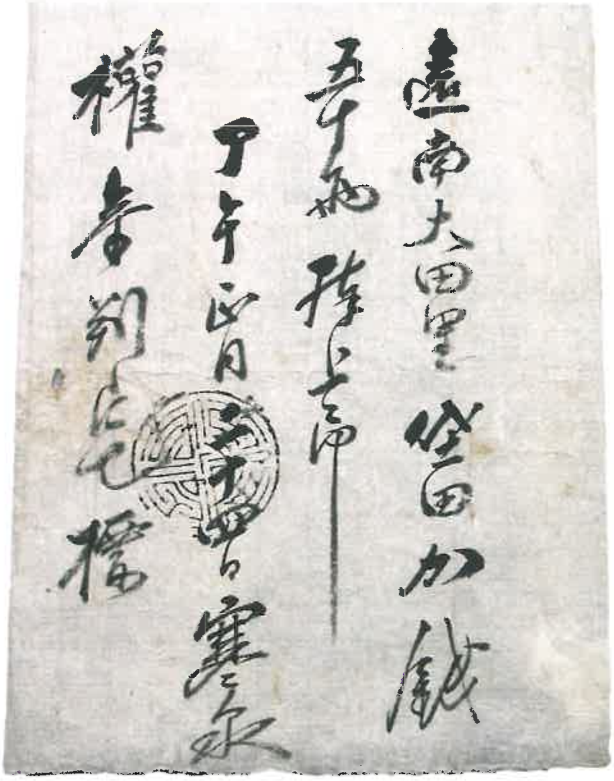


회계문서 (52.5×25.8㎝) 태안 이백선(李伯先) 회계문서(癸巳 : 1893. 2. 15)

세금계산서 (23.9×24㎝) 태안 백영환(白永煥) 세금을 내고 받은 계산서(癸巳 : 189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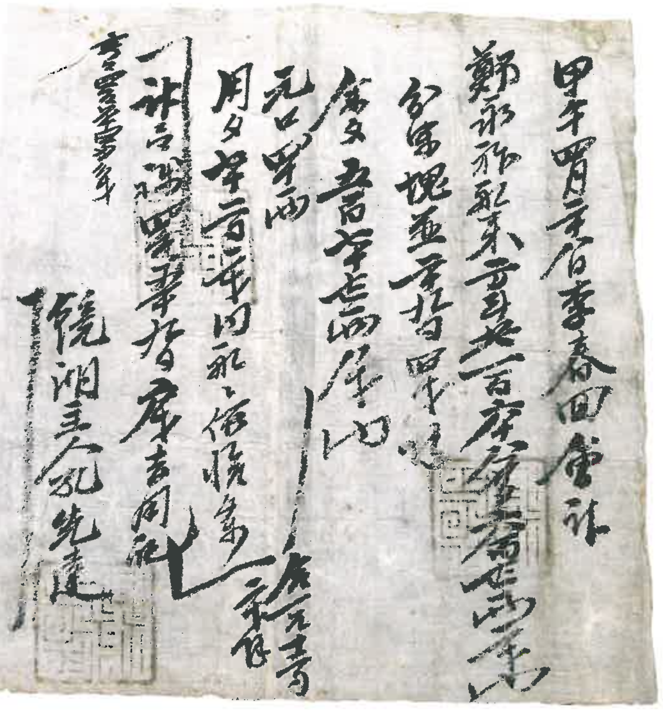


회계문서 (29.5×25.7㎝) 태안 김원여(金元汝) 회계문서(癸巳 : 1893. 9.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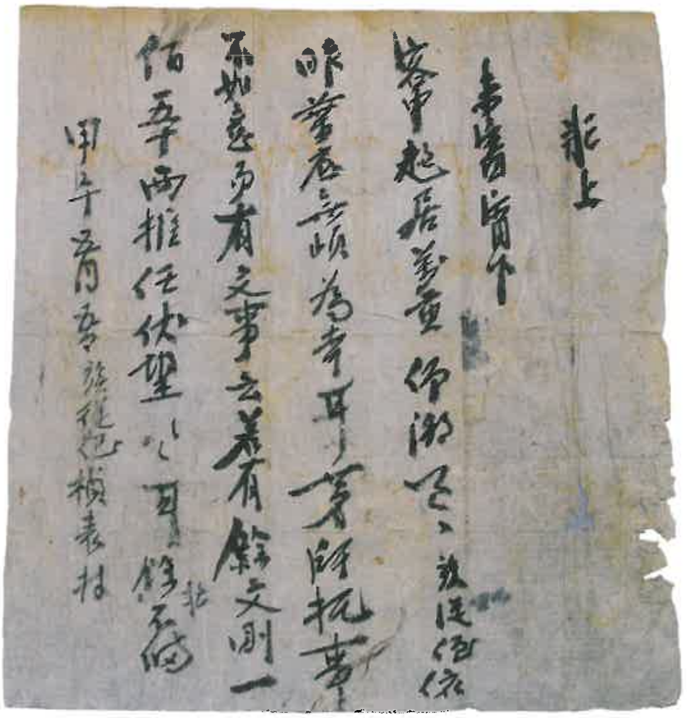


상납한 문서 (17×22.6㎝)

권참판(權參判)이 원남(遠南) 대전리(大田里) 대전금(垈田金) 50량을 상납한 문서(甲午 : 1894. 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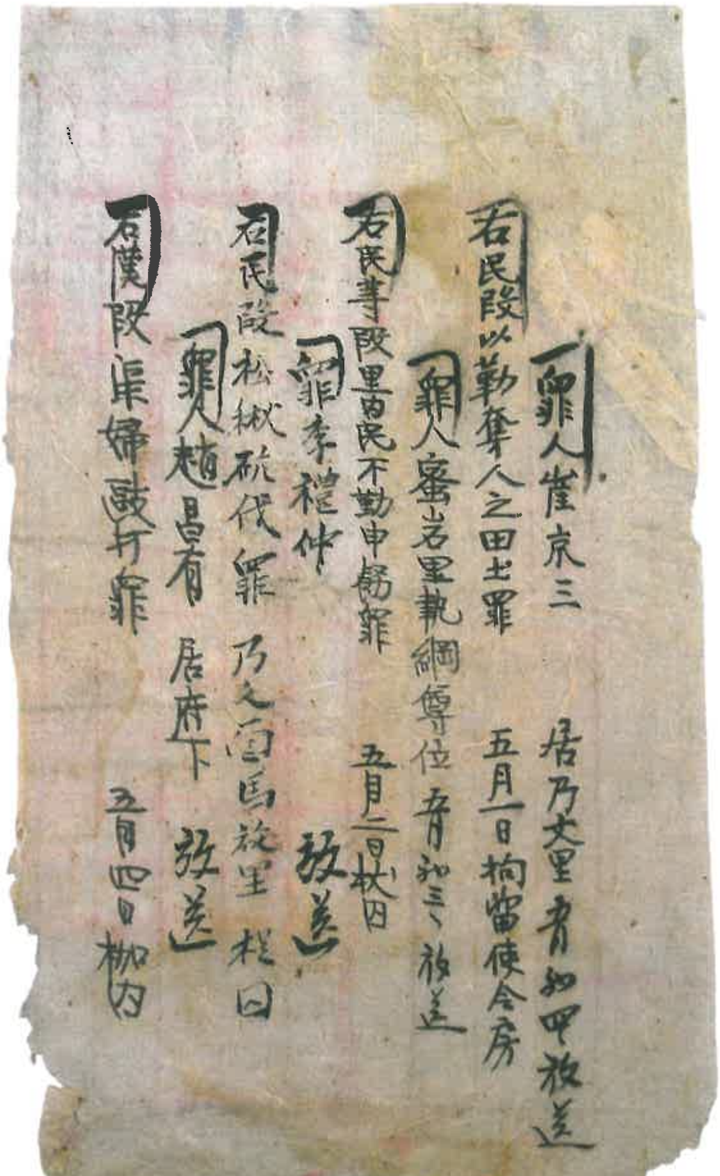


세금계산서 (22.2×23.5㎝) 이춘회(李春回)가 세금을 납부하고 받은 계산서(甲午 : 1894. 4. 28)



書簡文 서간문 (18×19.5㎝)

정표(楨表)라는 선비가 객지에 나가 사정이 어려우니 돈 150양을 인편에 보내 달라는 편지(甲午 : 1894. 5. 5)



罪人名簿 죄인명부 (16×27.8㎝)

이 죄인명부는 1894년 5월 초순경에 관가에서 죄인들의 죄명을 기록한 문서.

傳令 전령 (25.3×2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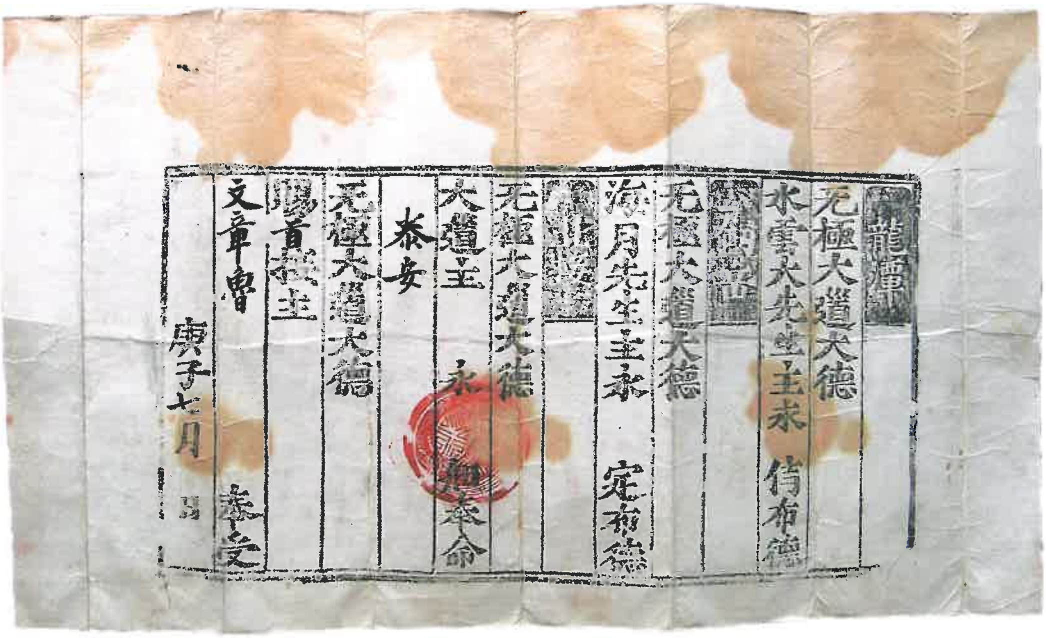
삭령군(朔寧郡) 석둔리(席屯里)에 거주하는 문학봉(文學奉), 김경직(金景直) 등을 즉각 체포하고, 또한 솔현리(率賢里)에 사는 이재성(李在成)도 체포해 오라는 관문서(甲午 : 1894. 8. 25)

傳令 전령 (23.5×27.4㎝)

내문리(乃文里)에 거주하는 오중선(吳仲善)을 즉시 체포하라는 관문서(甲午 : 1894. 12 .20)

帖紙의 封套 첩지봉투 (좌로부터 7.0×29.3㎝, 7.0×28.4㎝, 6.5×30㎝, 6.2×28㎝)

이 봉투는 문장로, 문구석, 문병석에게로 온 첩지의 봉투이다.


无極大道大德
水雲大先生主永 侍布德
无極大道大德
海月先生主永 定布德
无極大道大德
大道主 永 奉命
泰安
无極大道大德
首接主
文章魯
庚子七月 日 泰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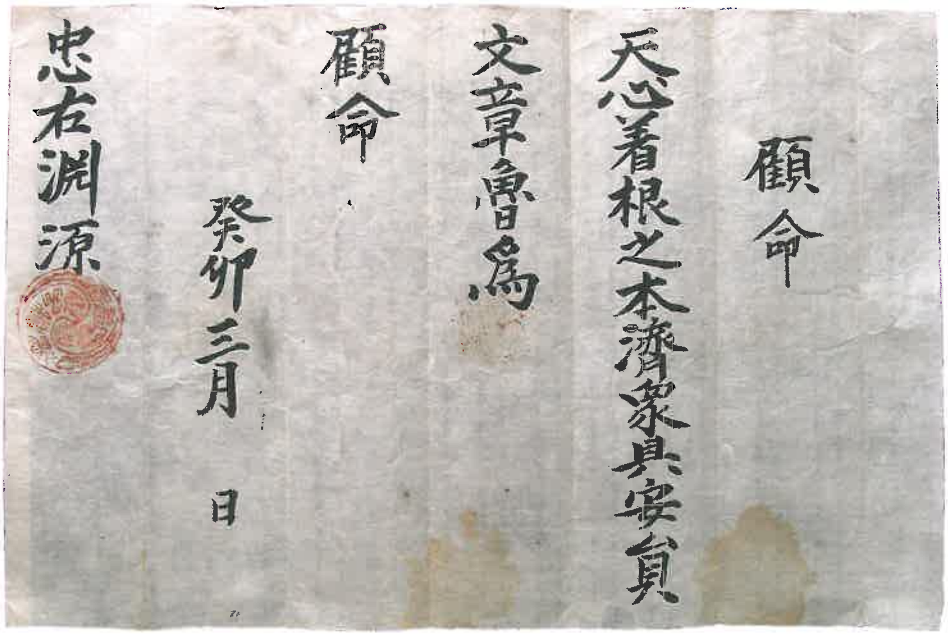
帖紙 첩지 (48×27.8㎝)

이 첩지는 동학 2세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 1900년 7월 문장로에게 태안수접주(泰安首接主)로 임명한 인장이다.

龍潭
元極大道大德
大先生主 永 侍布德
北接
元極大道大德
大道主 奉道
大山
元極大道大德
文章老
爲次接主 奉受
丁酉三月 日

帖紙 첩지 (43.8×26.9㎝)

이 첩지는 동학 2세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 1897년 3월 이천 앵산동에 있을 때 태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장로를 "차접주(次接主)"로 임명한 인장(認狀)이다.



顧命
天心着根之本濟衆具安員
文章魯爲
顧命
癸卯三月 日
忠右淵源

帖紙 첩지 (41×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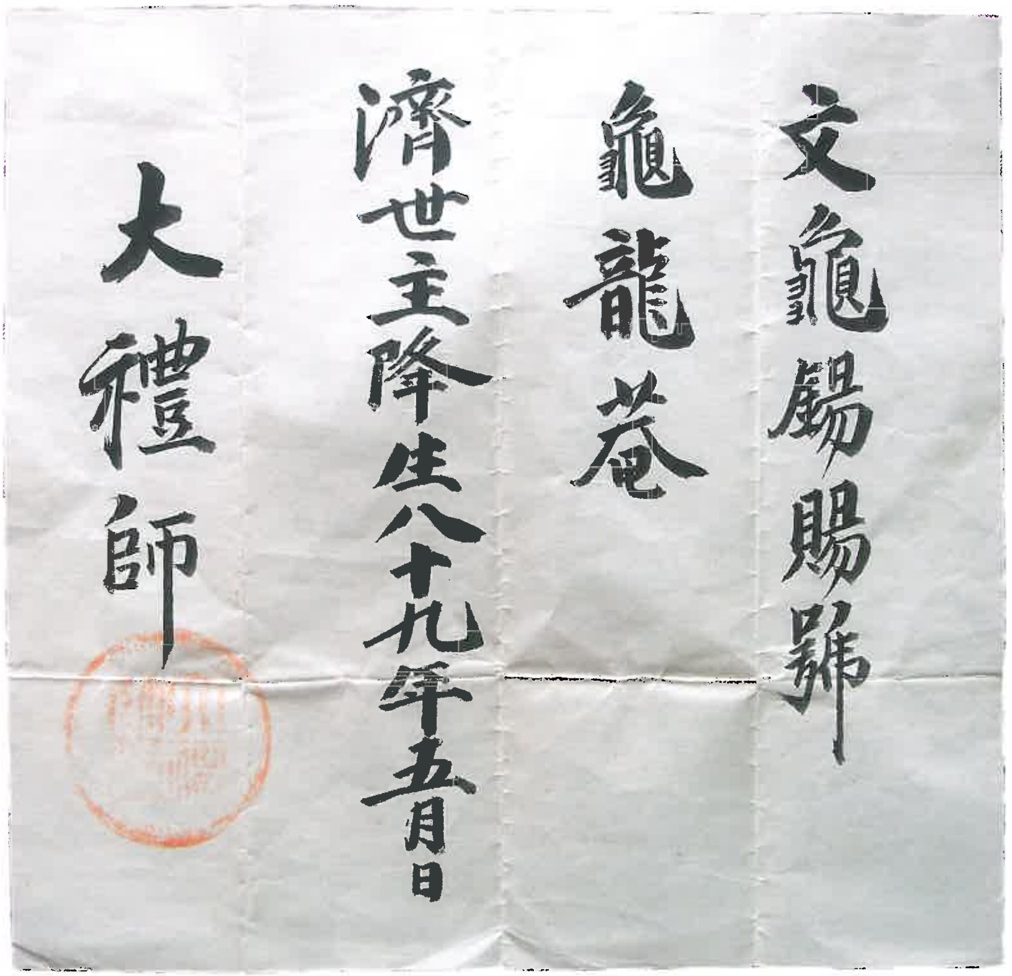
이 첩지는 충우연원(忠右淵源)이 1903년 3월 문장로(文章魯)에게 "천심착근지본제중구안원(天心着根之本濟衆具安員)"으로 임명한 임명장이다.

帖紙 첩지 (27×26.5㎝)

이 첩지는 1910년 5월 시천주 교주 구암 김연국 선생께서 문장로에게 호 자당(滋堂)을 내린 인장이다.

帖紙 첩지

이 첩지는 1911년 9월 시천주(侍天主) 교주 구암 김연국(金演局) 선생께서 문장로에게 도호 낙암(洛菴)을 내린 인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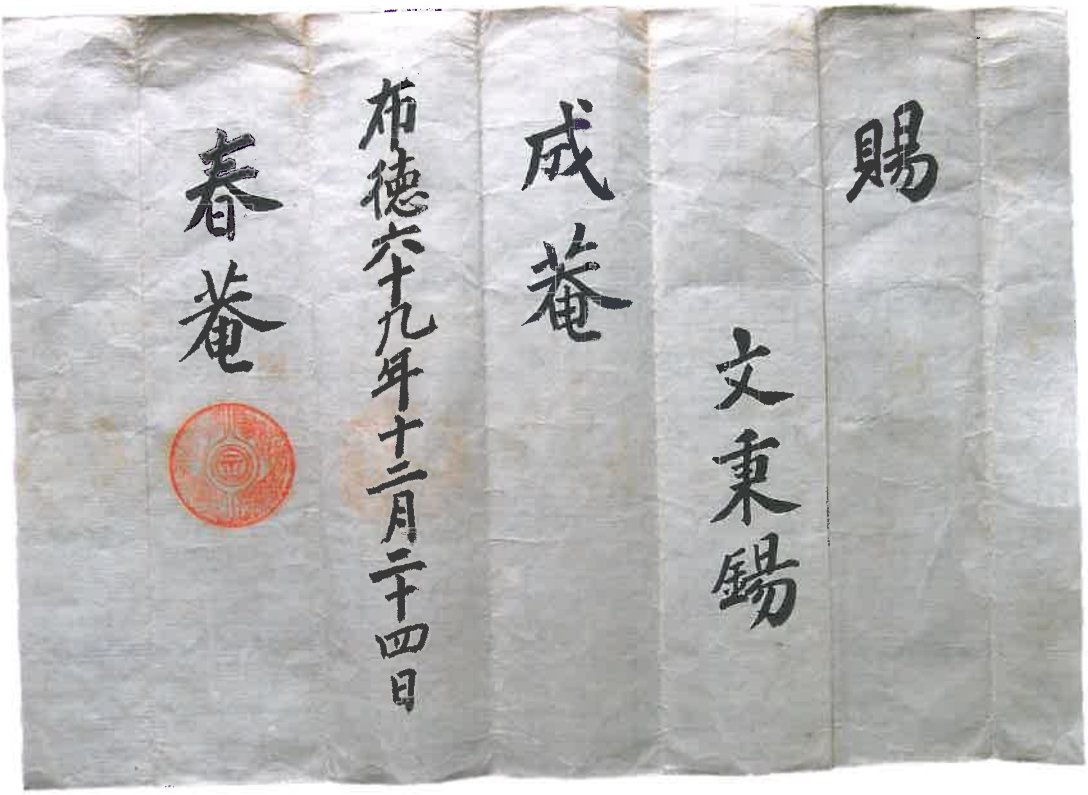


文龜錫賜號
龜龍菴
濟世主降生八十九年五月日
大禮師

帖紙 첩지 (27.3×26.3㎝)

이 첩지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관군과 일본군에게 총살형을 당한 문구석(文龜錫 문장로의 아들)에게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한 충효정신을 기르면서 1913년 5월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이 순절한 문구석에게 도호(道號)로 구룡암(龜龍菴)이라고 내린 첩지이다.

홍주전투 패전 이후 고향으로 피신한 문구석은 원북면 방갈리(갈머리) 마을로 태안 수접주인 부친(문장로)을 잡으러 온 관군과 일본군에게 붙잡혀 부친의 행방을 묻고 고문하자 큰소리로 "아버지 대신 나를 잡아가라"고 사정을 하던 차에 마침 뒷산에 숨어 계시던 문장로 접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길로 바다로 피신, 가솔을 데리고 도피하여 생명을 겨우 부지하였는데, 안면도, 광천 , 공주 마곡사, 아산 광덕산 등지로 10여 년간 피신하여 산중 토굴생활을 전전하다가 한일합방이후 체포령이 느슨해지자 예산으로 정착하시었다.)



帖紙 첩지 (39.8×2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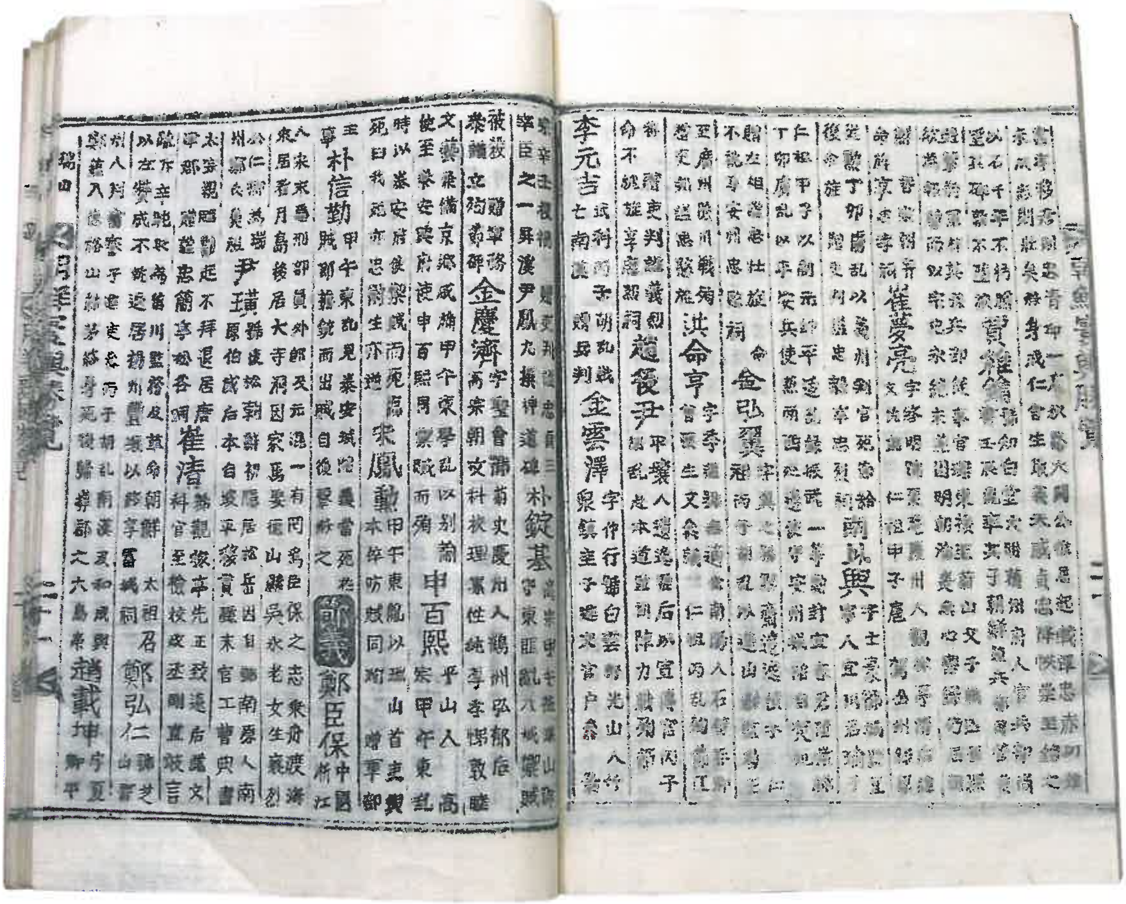
이 첩지는 1928년 12월 24일 인일기념일(人日紀念日)에 천도교(구파) 교주 춘암(春菴) 박인호(朴寅浩)가 문병석(文秉錫)에게 도호 성암(成菴)을 내린 인장이다.

松沙文集 卷之二十五 송사문집 권지25 (21×31.2×2.0㎝)

이 문집은 한말의 유학자 우기만(奇宇萬:1846~1916)의 작품으로 송사는 그의 호이다.

이 문집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이 있는 기록으로 나주평적비문(羅州平敵碑文)이 있다. 이 글 내용 가운데 "호서유홍주성(湖西有洪州城)"이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홍주성은 지금의 충남 홍성(洪城)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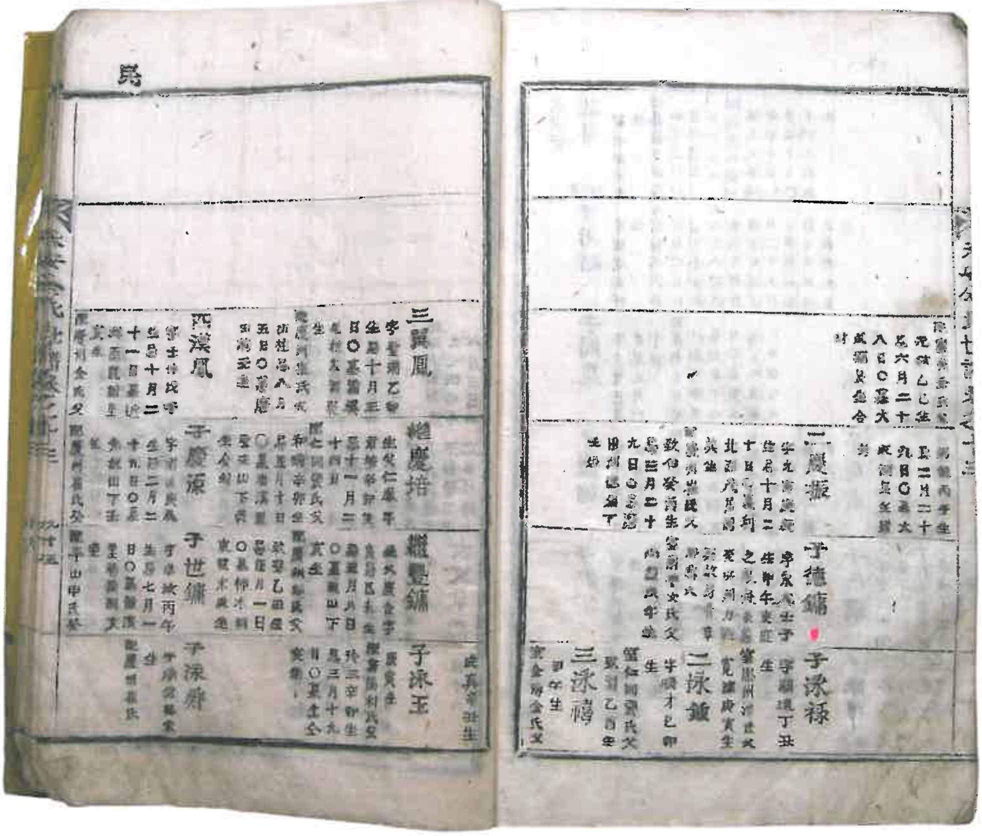
「북접일지(문장준 역사, 조석현 역사)」 그리고 「주한일본공사기록」 중 "동학당 정벌에 관한 제보고서"에 의하면 이 홍주성 전투에서 제일 먼저 도착하여 성을 포위하고 공격한 군사들은 대부분 태안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군들이라고 한다.



朝鮮寰輿勝覽 조선환여승람 (20.5×30×1.4㎝)

이 조선환여승람은 인문, 지리, 고적, 명소 등을 소개한 책으로 서산군편에 10월 1일 아침 태안관아를 에워싼 동학농민군들은 원북면 방갈리, 이원면 포지리, 근흥면 토성산, 남면, 안면도 등지에서 기포한 동학농민군을 비롯하여 군내 일원에서 모여든 일반 교도들까지 합쳐 수천 명에 이르렀으며, 태안 관아에 투옥되었던 동학 두목 30여 명을 처형 직전에 무사히 구출하고, 태안군수 신백희(申百熙)와 순무사 김경제(金景濟)를 처단하였다.

이렇게 태안관아가 함락되어 동학군의 수중에 들어갔을 무렵 거의 같은 시각에 서산에서도 서산관아를 점령하고 박정기(朴錠基) 군수와 송봉훈(宋鳳勳) 이방을 처치했다고 한다.



世譜(天安全氏世譜卷之十三 辛未譜)
세보(천안전씨세보권지13. 신미보, 1931年) (23.3×35.8×2.0㎝)

이 세보에 갑오동학농민혁명당시 홍주성 전투에서 전사한 원북면 반계리 전덕용(全德鏞), 마산리 전경로(全慶魯)의 기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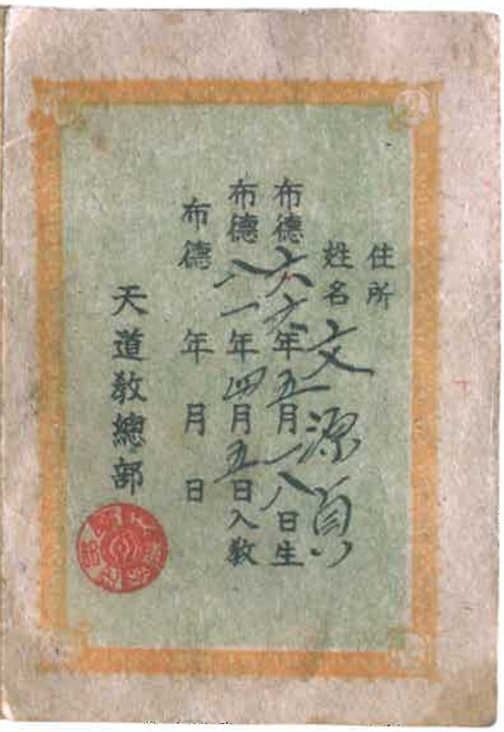
徽章 천도교 휘장

이 휘장은 천도교 기념일에 유공교인에게 수여하는 메달의 일종이다.(도집(都執) 문장준(文章峻) 소장품 (1924))

道服 도복

이 도복은 천도교 의식중(시일행사, 의식행사) 집례자나 설교자가 입는 복장의 일종.(원암(源菴) 문원덕(文源德) 소장품(1947))

天道教憑 천도교빙 (6.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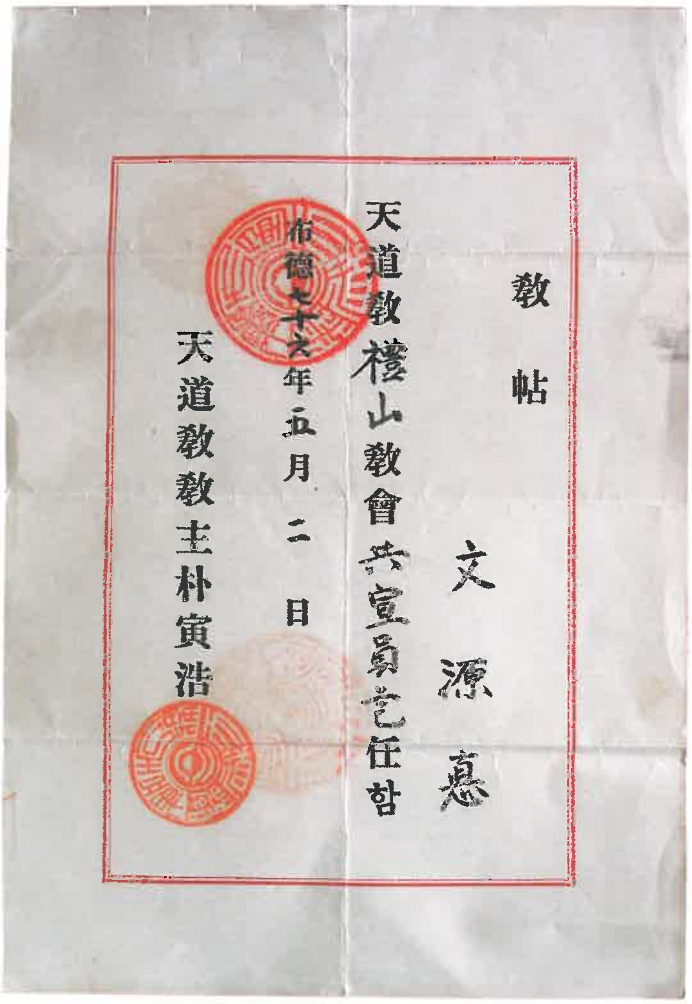


入道證 입도증

이 입도증은 1941년에 문원정(文源貞) 선생이 천도교에 입도했다는 신분증명서이다.

銀粧刀 은장도

이 은장도는 태안 문장로 대접주가 관군과의 전투에서 몸속에 간직하던 은장도인데(체포에 대비하여 자결을 염두에 두고 일편단심 위국충성을 생각했다) 칼날은 분실되었음.


教帖

文源悳

天道教禮山教會共宣員을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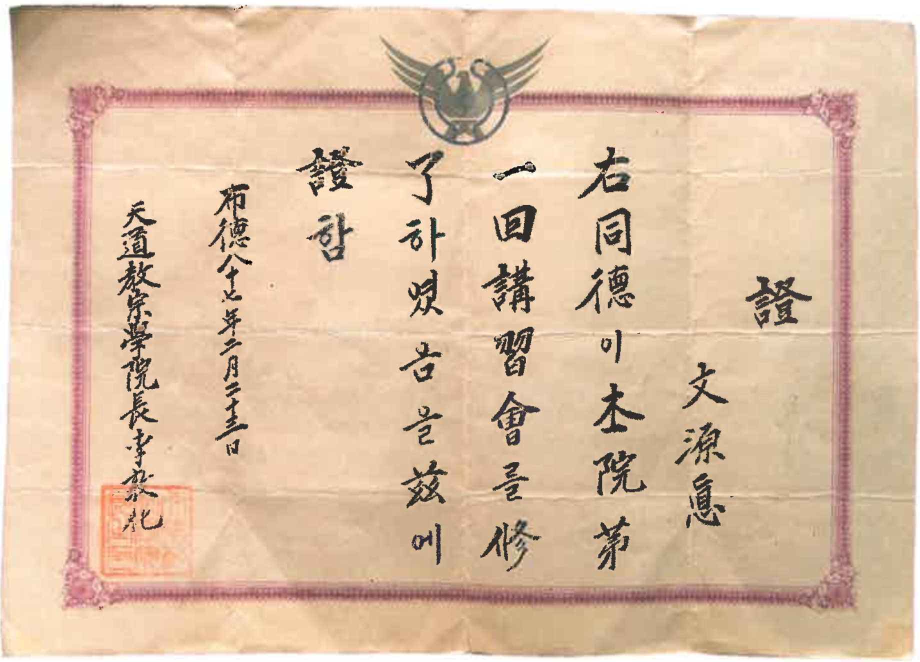
布德七十六年五月二日

天道教教主朴寅浩

敎牒 교첩 (17.5×25.7㎝)

이 교첩은 원암 문원덕 선생에게 내린 공선원(共宣員) 교첩이다.(1936)

1935.


證

文源悳

右同德이本院第
一回講習會를修
了하였음을玆에
證함

布德八十七年二月二十二日

天道教宗學院長 李敦化

證 수료증 (36.4×25.8㎝)

이 증은 원암 문원덕 선생께서 ~~1947~~ 1946년에 천도교종학원 제1회 수료증이다.

認狀

文源悳

天道教禮山教區巡回敎師을認함

布德八十七年 一月 十日

天道教總部教務院長 李 關

認狀 인장 (17.6×24.2㎝)

이 인장은 천도교에서 순회교사(巡廻敎師)로 문원덕 선생에게 내린 인장이다.(~~1947~~) 1946

太極旗 태극기

이 태극기는 1965년 갑오동학농민혁명군 태안 유족회 결성 당시 계양했던 국기.

東學精神宣揚會旗 동학정신선양회기

이 동학정신선양회기는 1965년 최초로 동학정신선양회가 결성되어 사용하던 심벌이다.

弓乙旗 궁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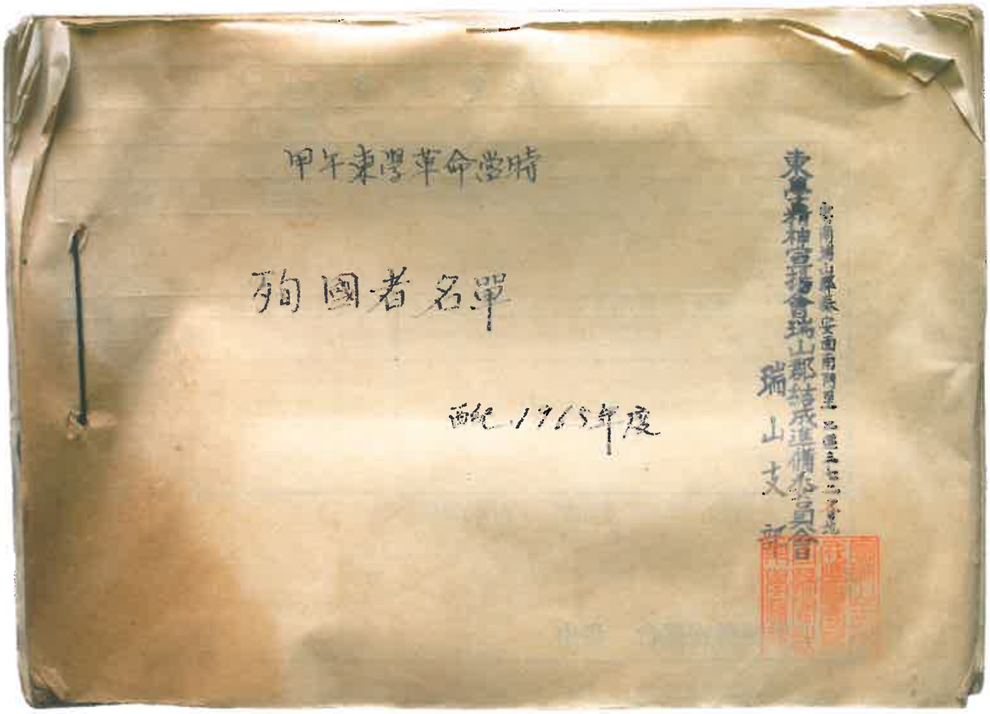
이 궁을기는 천도교 제3조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선생께서 제작한 것으로 동학(東學)에서 천도교(天道敎)로 개칭하면서 은도시대를 벗어나 현도시대를 맞이하면서 명실상부한 종교로 자리를 잡고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널리 만천하에 고하고 세도와 규제를 마련하고 궁을기를 제작하여 천도교의 상징을 들어내는 교기(敎旗)로 사용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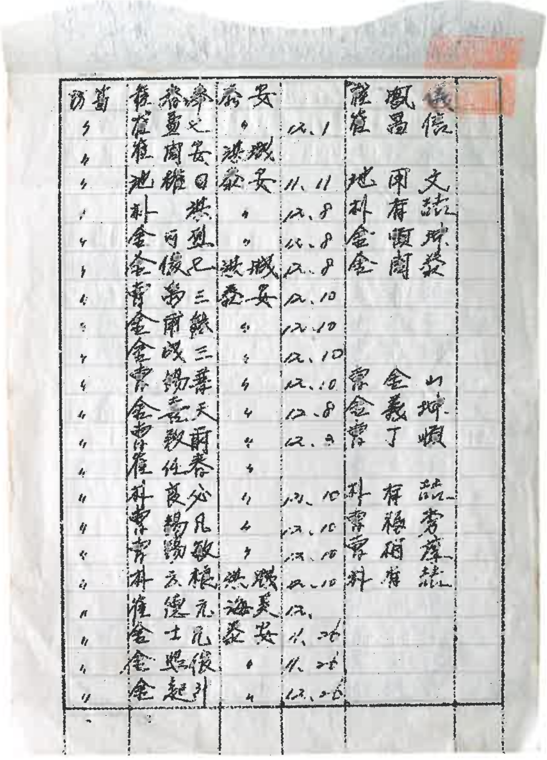
궁을기는 태극(太極)형과 궁을(弓乙)형을 집합하여 천도교의 부도로 나타내며 사용하였다.

사람들이 천심을 지키면 마음이 화하고 기운이 화하면 한울(天)과 더불어 우주 만물이 화합하게 되는 것이다. 궁(弓)은 바로 한울궁(弓) 을(乙)은 바로 한울을(乙)이니 궁을은 천도의 상징적 그림이요 천지의 형체를 나타내는 것이다.(1965년 제작)

甲午東學革命當時殉道者名 갑오동학 당시 순도자명단(1965) (26.5×19.4×3.3㎝)

갑오동학혁명 당시 순도자명단은 원암 문원덕 선생이 수 십년간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 서산, 태안, 당진, 예산, 아산 등지의 동학농민혁명 당시 수도 순국하신 선열의 발자취를 찾아 당사자 후손의 증언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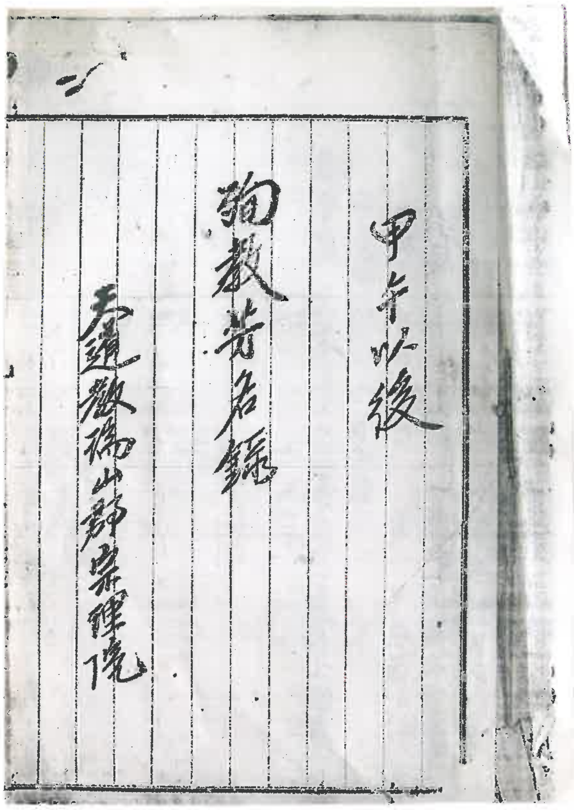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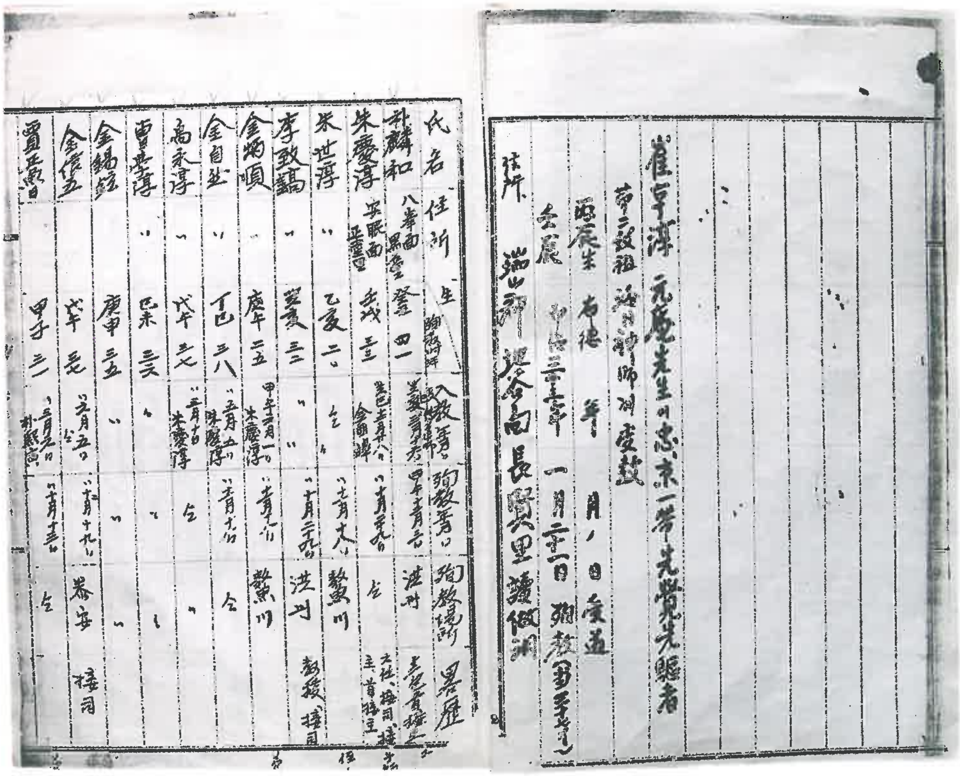


甲午東學革命軍殉國者名單

갑오동학혁명군순국자명단

이 명단은 1965년 원암 문원덕 선생께서 작성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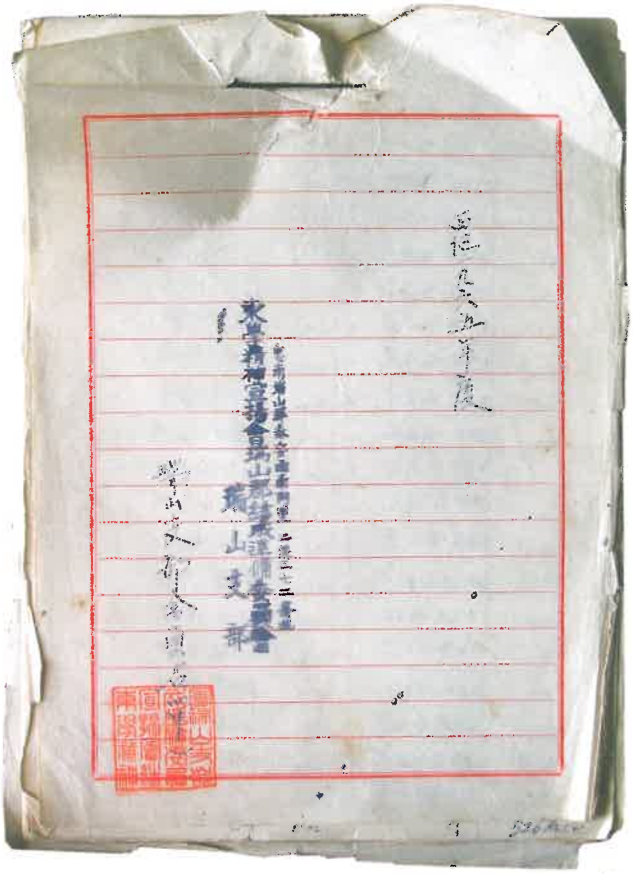




甲午以後 殉教芳名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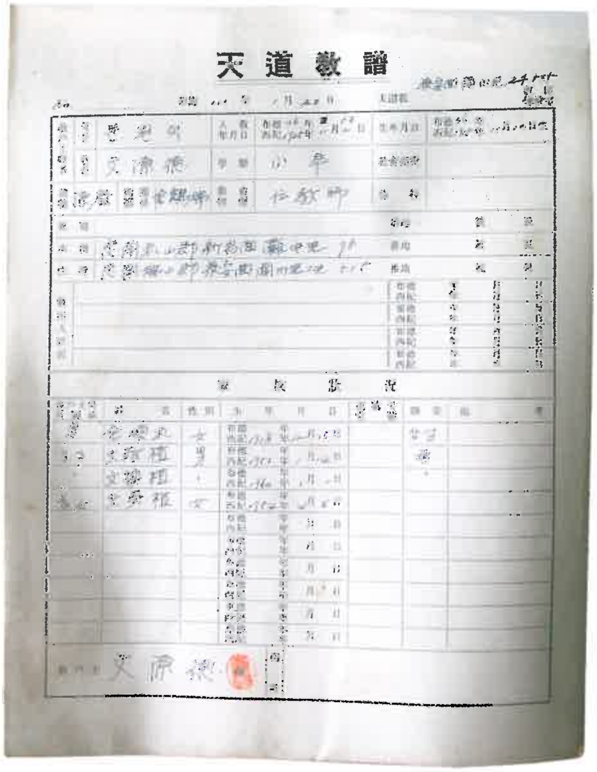
갑오이후 순교방명록 (18.1×25.7×0.15㎝)

이 순교방명록은 동학농민혁명 당시 태안 서산 홍주성 전투에 참가하여 순국한 명단으로 천도교 서산교구 종리원에서 작성한 일부 명단이다.(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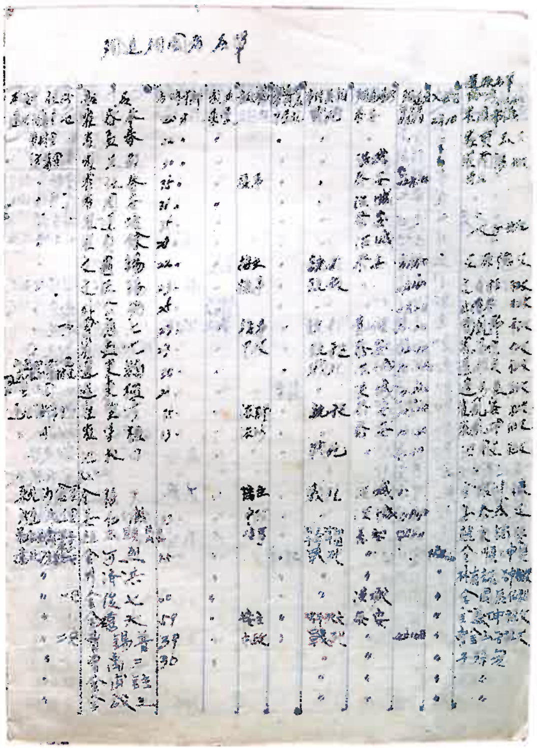
東學精神宣揚會 名單
동학정신선양회명단 (19×2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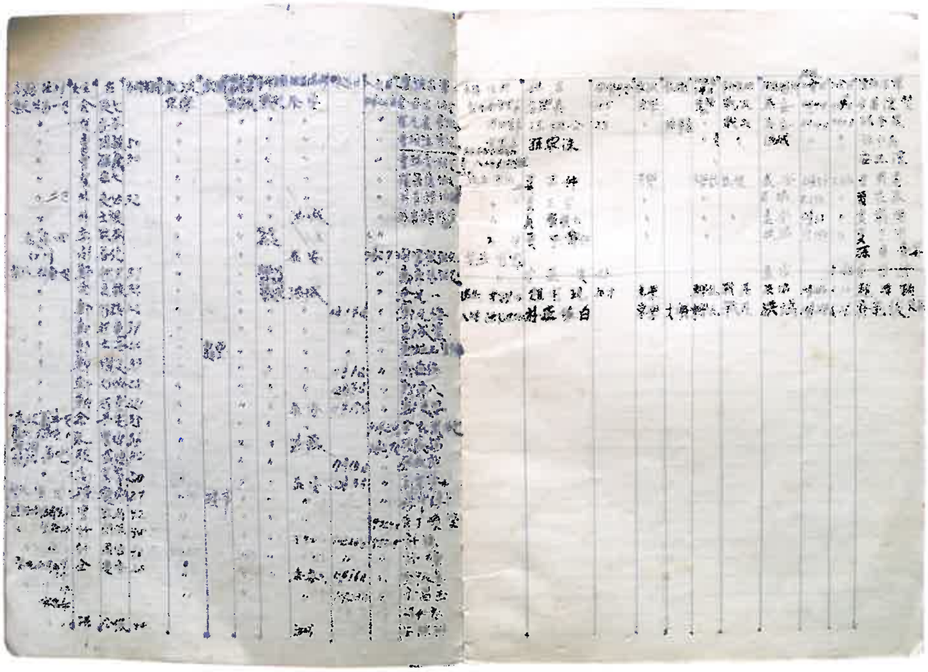
이 명단은 동학정신 선양회 서산군지부 명단이다.(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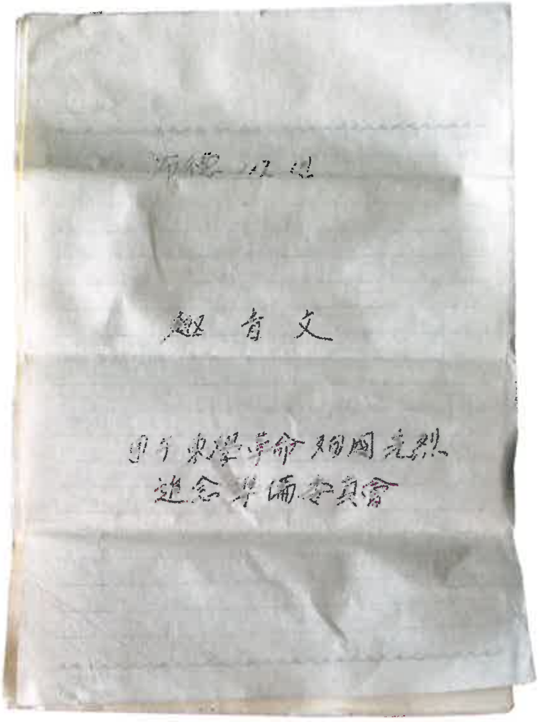
天道教譜 천도교보

이 천도교보는 천도교 태안교구 교적부이다. (~~1969~~)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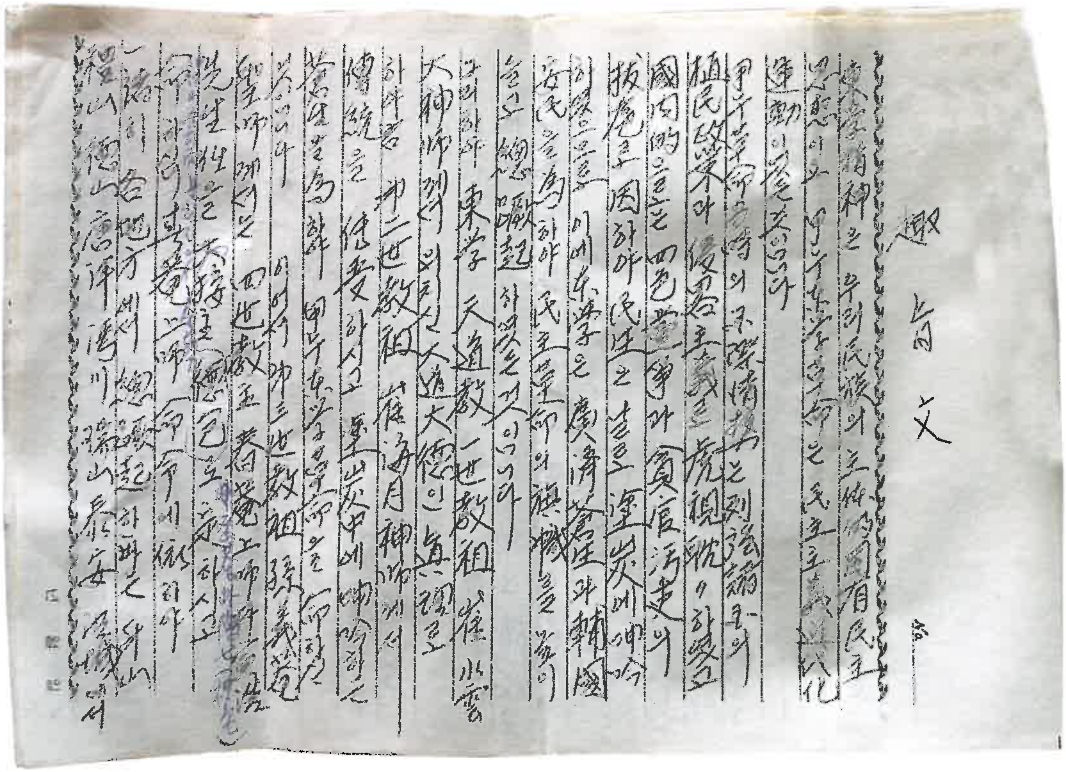


殉國者名單 순국자명단(동학정신선양회, 1965~1966) (19×26.6×0.1㎝)



趣旨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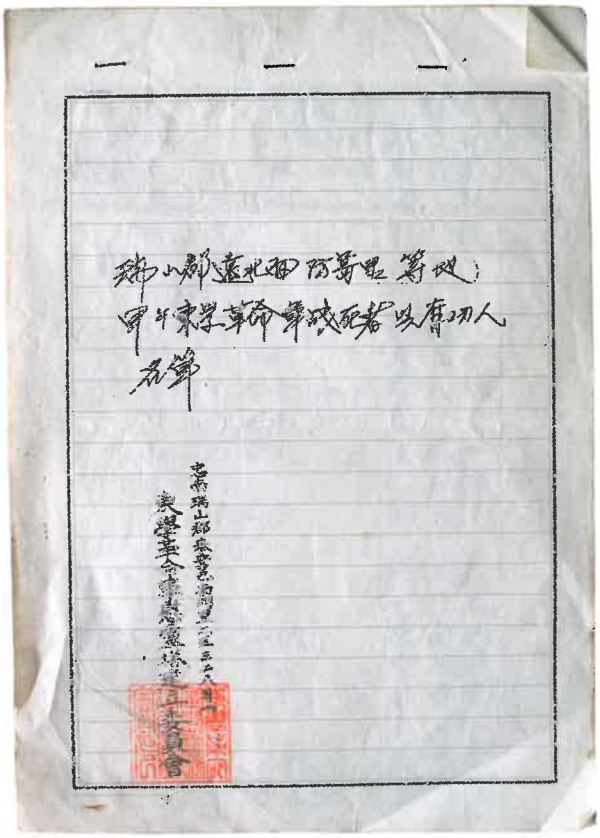
甲午東學革命殉國先烈
追念準備委員會



趣旨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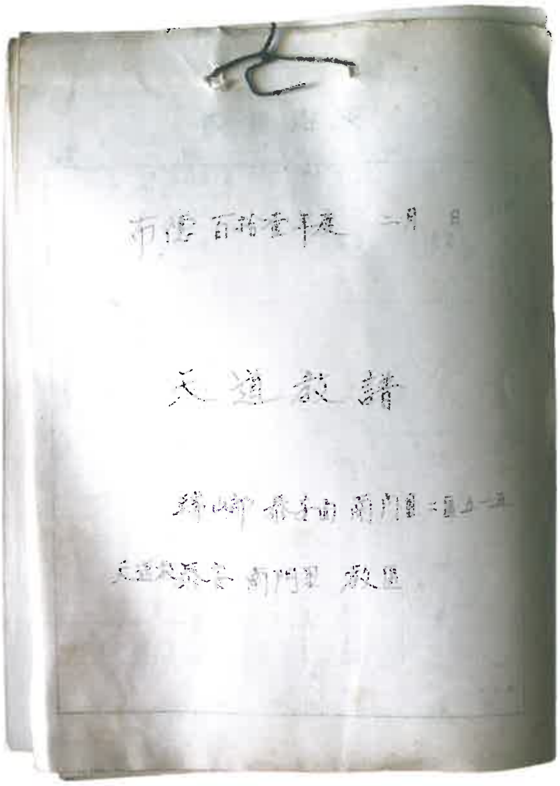
趣旨文 취지문

이 취지문은 갑오동학농민혁명 순국선열 추념준비 위원회 발기 취지문 초고(~~1970~~) 1971



瑞山郡遠北面防葛里等地
甲午東学革命戰死者및有功人
名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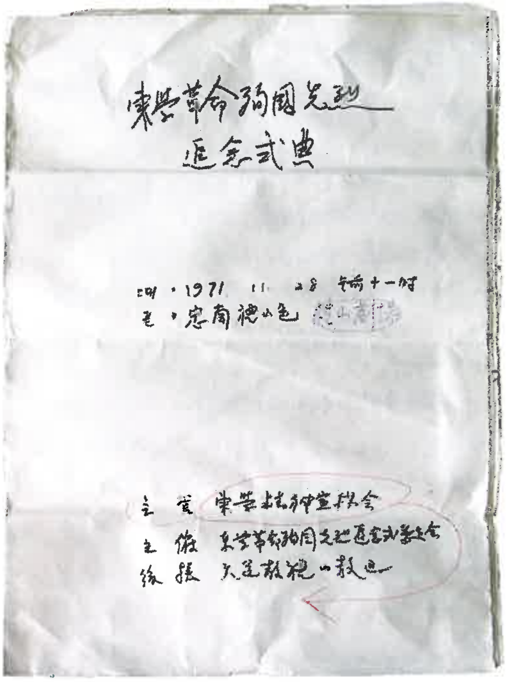
東學農民革命軍 戰死者 名單
동학농민혁명군 전사자 명단(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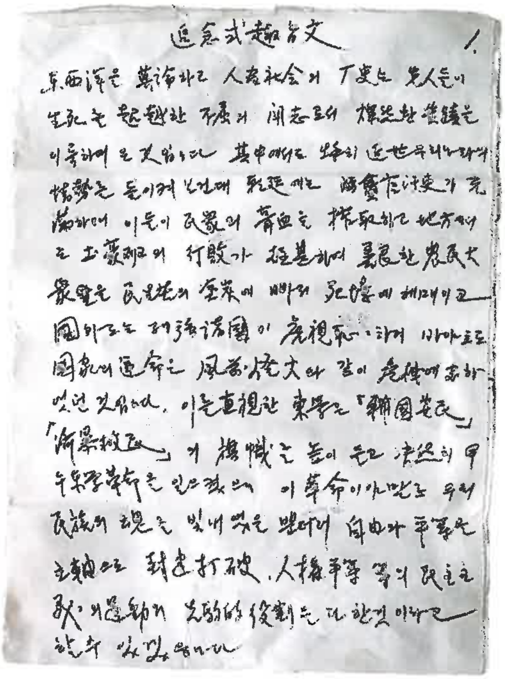
天道敎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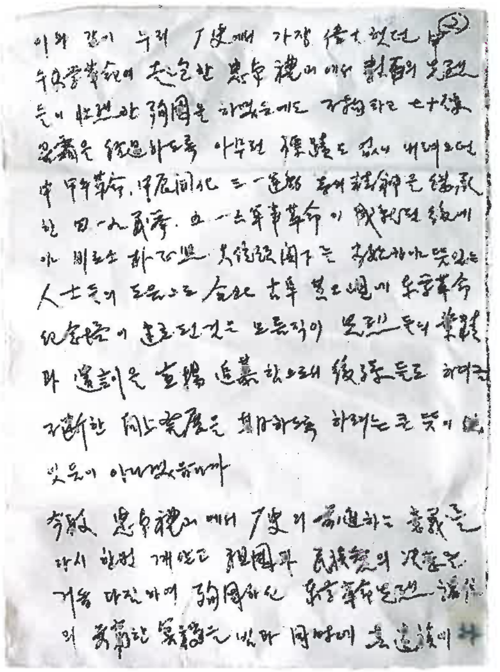
天道敎譜 천도교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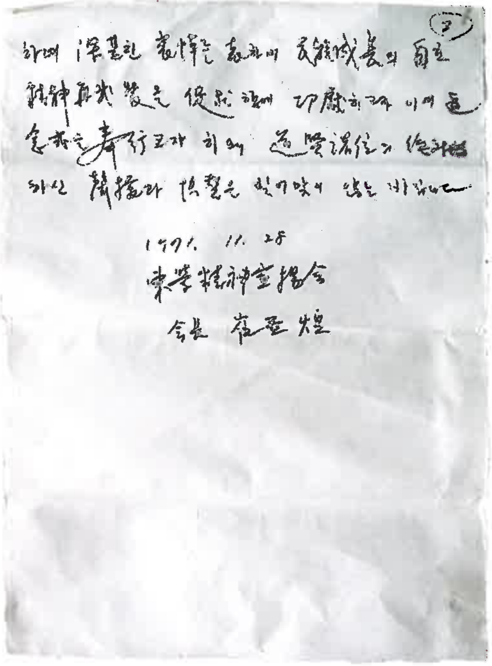
이 천도교보는 ~~1971~~ 1970년에 천도교 태안교구에서 작성한 교적부이다.


東學革命殉國先烈
追念式典

1971. 11.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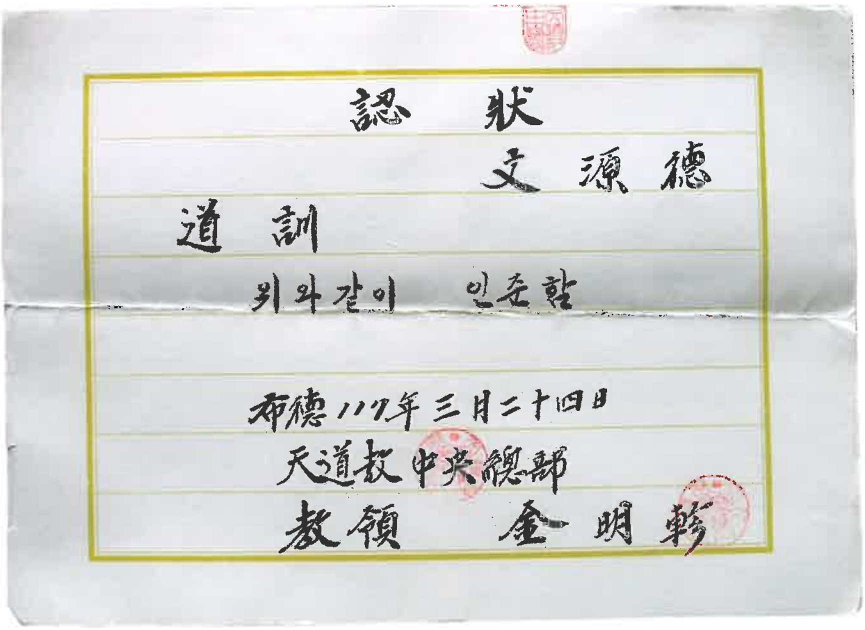

追念式趣旨文




1971. 11. 28

東學革命殉國先烈追念式典 동학혁명순국선열추념식전(1971. 11. 28.)

이 기념식전은 충남 예산에서 원암 문원덕 선생께서 준비하여 거행한 동학농민혁명 순국 선열 추념식에서 낭독한 동학정신선양회 회장의 추모사 원본(천도교 2세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의 손자인 최익환 선생의 원고이다.)



認 狀

文源德

道訓

위와 같이 인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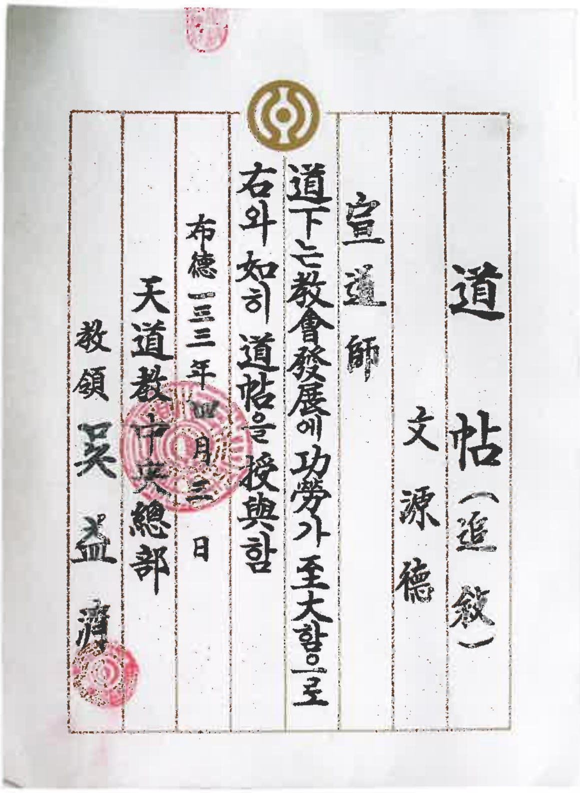
布德117年三月二十四日

天道敎中央總部

敎領 金明軫

認狀 인장 (27.3×19.1㎝)

이 인장은 ~~1977~~ 1976년 3월 24일 문원덕 선생이 도훈(道訓)으로 임명한 인장이다.



道帖(追敍)

文源德

宣道師

道下는 敎會發展에 功勞가 至大함으로

右와 如히 道帖을 授與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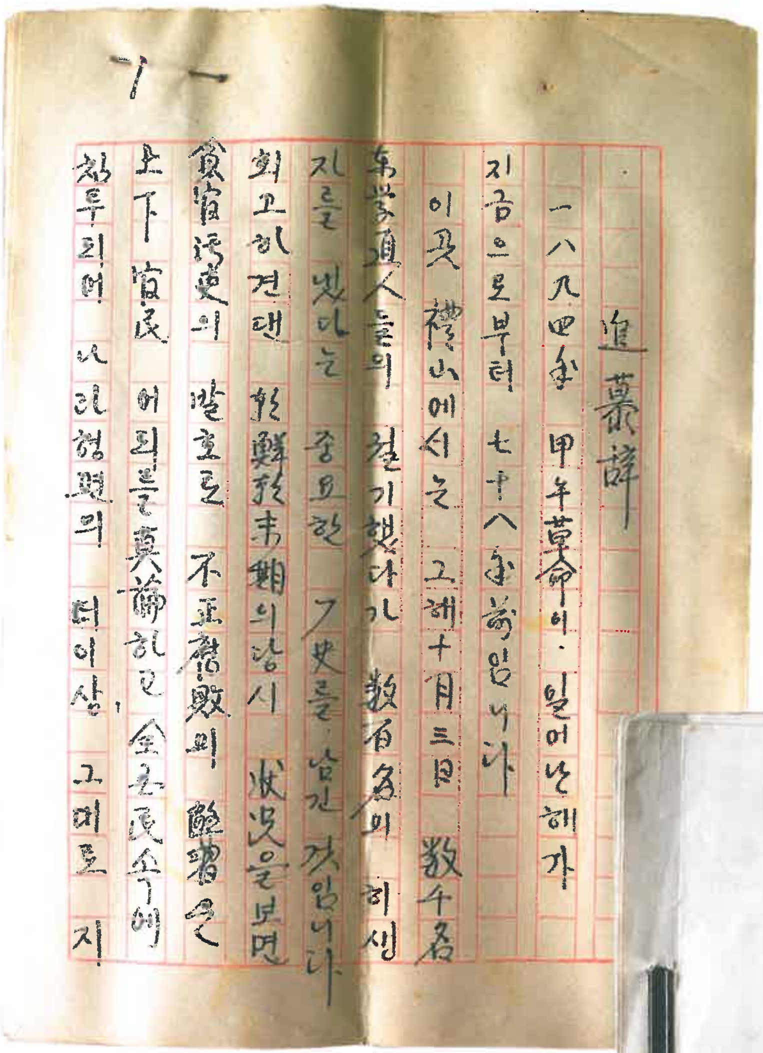
布德一三三年四月三日

天道敎中央總部

敎領 吳益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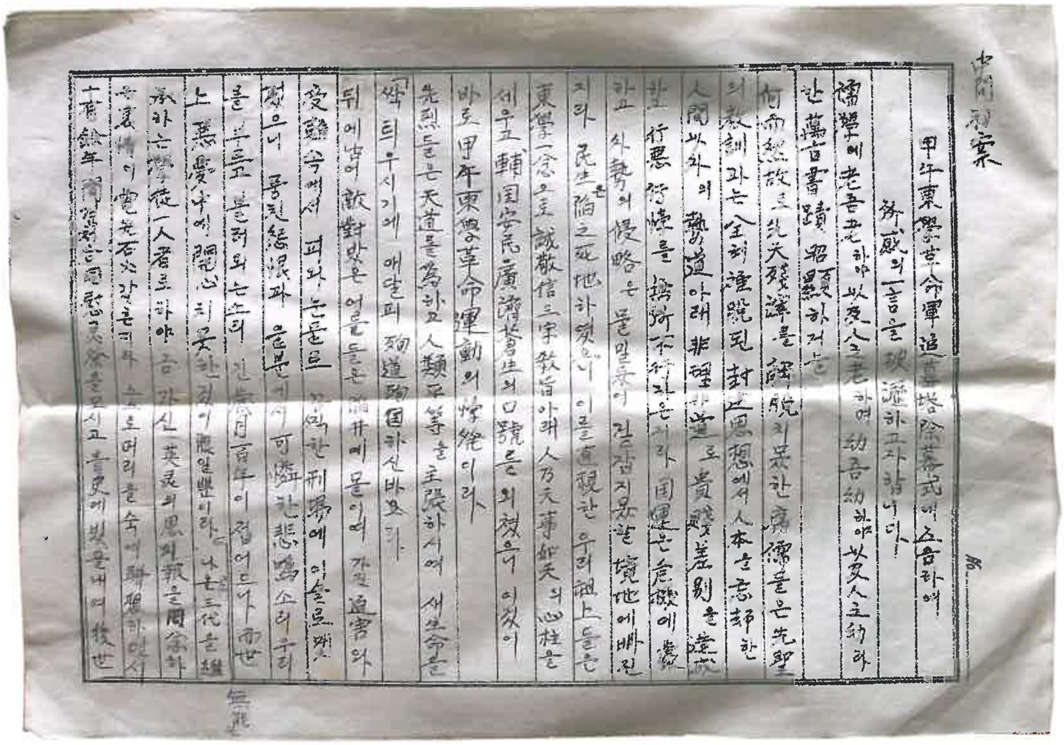
道帖 도첩 (19.2×26.3㎝)

이 도첩은 천도교 태안 교구장 원암 문원덕 선생이 사후(死後)에 생전의 그 공적을 기려 천도교교령이 선도사(宣道師)로 추서(追敍)한 도첩이다.(~~1993~~ 1992. 4. 3.)



草案 초안 : 갑오동학혁명추모탑건립위원회 (19.5×27.3×0.2㎝)

이 초안은 1977년 원안 문원덕 선생께서 작성한 초안이다.



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除幕式에 즈음하여

所感의 一言을 [illegible]하고자 합니다.

儒學에 老吾老하야 以及人之老하여 幼吾幼하야 以及人之幼라

한 [illegible]古書蹟 [illegible]하거는

何而然故로 此天殘[illegible]를 [illegible]脫치 못한 [illegible]德을은 先聖

의 敎訓과는 全혀 [illegible]된 封建思想에서 人本主義者한

人間 사자의 勢道아래 非理한 [illegible]로 貴賤差別을 [illegible]

한 行惡 [illegible]를 [illegible]不行자은 [illegible]라 國運은 危機에 [illegible]

하고 外勢의 侵略은 물밀듯이 걷잡지 못할 境地에 빠진

지라 民生은 塗炭之地하였으니 이를 直視한 우리 祖上들은

東學一念으로 誠敬信三字敎旨아래 人乃天事人如天의 心柱을

세우고 輔國安民廣濟蒼生의 口號를 외쳤으니 이것이

바로 甲午東學革命運動의 [illegible]이라

先烈들은 天道를 爲하고 人類平等을 主張하시여 새生命을

[illegible]를 우시기에 애달피 殉道殉國하신 바요 [illegible]

뒤에 남어 [illegible]對받은 얼들은 [illegible]에 몰이며 갖은 迫害와

[illegible]에서 피와 눈물로 [illegible]한 刑場에 이슬로 [illegible]

였으니 풍진[illegible]과 [illegible]에서 可[illegible]한 悲[illegible]소리 우리

를 부르고 울려되는 소리 [illegible]百年이 접어드나 [illegible]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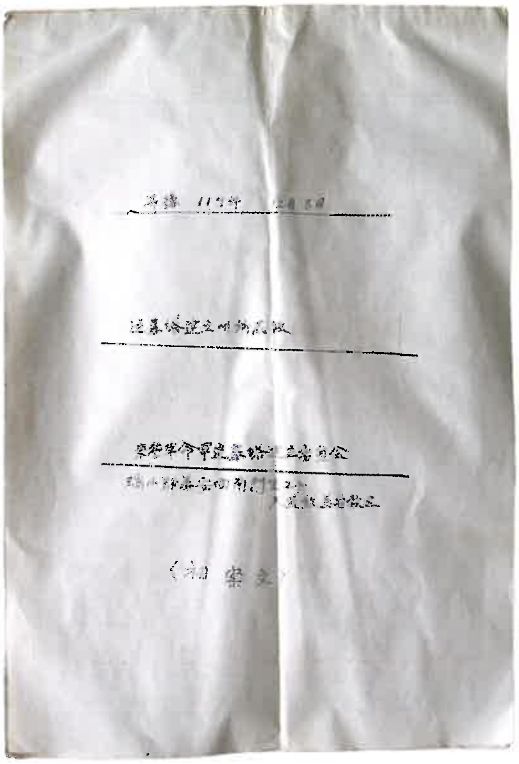
上 [illegible]에 [illegible]치 못한 것이 [illegible]일뿐이라 [illegible]三代을 繼

承하는 [illegible]徒一人者로 하야 금 가신 英灵의 恩의 報을 [illegible]하

[illegible]이 [illegible] 갖은 [illegible] [illegible]로 머리를 숙여 [illegible]하면서

十餘年 [illegible]을 모시고 靑史에 빛을내며 後世

[illegible]



布德 119年 [illegible]

追慕塔建立에 [illegible]

東學革命軍追慕塔[illegible]

[illegible]

(相 宗 文)

追慕塔建立 所感錄 추모탑건립 소감록

원암 문원덕 선생께서 갑오동학농민혁명 순국선열 추모탑 건립을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제적인 문제로 완공을 보지 못하던 중 자신의 소회를 적은 소감록이다. 그는 여기에서 선열의 정신과 유훈 순국한 선열에 대한 애틋한 애국애족정신의 발현 등 후손으로서의 도리로 일을 도모하는 의미 등을 피력하였다.(1978)

甲午東學革命軍追慕塔建立祭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건립제

이 추모탑건립제의 문안은 제막식 홍보물이다.(~~1978~~. 12. 4.) 1977

布德 一一八年 十二月 三日(除幕)
慰靈文 아울러
當時 眞相을 聯想함이요
甲午東學革命追慕塔 建立委員會

慰靈文 위령문 (18.2×25.8×0.3㎝)

태안 갑오동학농민혁명 추모탑 제막식 당시 원암 문원덕 선생이 낭독한 위령문이다.(~~1978~~(布德 118年). 12. 3.) 1977

갑오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이 사진은 태안극장에서 제1차 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를 지내는 모습과 그 기념으로 촬영한 것이다.(1969. 5. 5.)

갑오동학농민혁명군 기포지 추모제

이 사진은 원북면 방갈리(가시내)에서 추모제를 지내고 촬영한 사진이다.(1969. 5. 5.)

갑오동학농민혁명군 추모탑 건립 제막식

이 사진은 태안백화산록에 건립된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의 제막식을 촬영한 것이다.

泰安地域 東學農民革命 關聯 遺蹟地

원북면 방갈리 갈머리 현재 泰安火力發電所 부지(통개에서 본 태안화력)

방갈리는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군의 기포지(起包地)이다. 그러나 태안지역에서 최초로 서산의 지곡면에 살고 있는 최형순(崔亨淳)이 1890년의 이원면 포지리에 와서 동학을 전교하였다. 그 뒤를 이어 원북면 방갈리에 전교된 다음 급속도로 동학에 입도하는 신도가 늘어 기포전야까지 태안군내 전 지역이 동학일색이 되어 교세가 파죽지세로 확대 되었다.

1893년(癸巳) 2월 상순경 상암(桑菴) 박희인(朴熙寅) 대접주가 옹기장수로 변장하고 전교를 시작하면서 방갈리에 들어가 우선 조운삼(曺雲三)을 입도시키고 이어서 갈머리 마을 문장로(文章魯)와 문구석(文龜錫) 부자를 입도 시켰다.

이로써 이미 최형순에 의해 입도한 동학교도와 이어 상암 박희인에 의해 입도한 교도들이 합세하니 방갈리의 동학세력은 날로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갈머리 문구석의 집과 가시내 조문필(曺文必)의 집에서 동학교도들이 비밀리에 모여 동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방갈리를 기점으로 하여 태안군 전역에 그 뿌리가 뻗어내려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이 무렵 10월 1일에 태안관아에 갇힌 동학 두목을 처형한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이 때 9월 그믐날 예산 본포(本包)에서 통지가 왔다. 각처에 구금되어 있는 동학 두목을 구출하라는 훈시가 내려졌다. 이에 방갈리에서 문장로 접주를 위시해서 대오를 편성하고 태안을 향해 진군하여 근흥면 수룡리 토성산에서 기포한 동학농민혁명군과 원북 소원 안면도 등지에서 기포한 수천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이 집결하여 태안관아에 구금되어 있던 동학 두목 30여 명을 구출하고 태안군수 신백희(申百熙) 별유사 김경제(金慶濟)를 처단하였다.

교장(絞杖)바위, 추모탑 태안읍 백화산(白華山)

1894년 덕포 박인호(朴寅浩) 예포 박희인(朴熙寅) 대접주가 인솔하는 동학농민혁명군은 작전상 일단 후퇴하였다. 그 후 여미 벌에서 집결하여 전열을 정비한 동학농민혁명군은 그해 10월 23일 승전곡 전투에서 동학농민혁명사의 분수령을 이루는 대승을 거둔 후 예산, 신례원, 대흥, 덕산 지역을 점령하고 10월 28일 홍주성 공격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최신식 무기를 앞세운 왜병과 관군의 연합작전에 의해 무려 1천 여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이 무참히 희생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홍주성에서 대패하여 관군과 왜군에 쫓긴 동학농민혁명군은 해미와 서산전투에서 또 다시 패전하여 재기할 여력을 잃은 채 최후로 백화산에 집결하였고 동지섣달 설한풍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어가거나 뿔뿔이 해산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비록 진퇴양난으로 궁지에 몰렸을망정 동학농민혁명군들은 관군과 왜군들에게 잡혀 죽으면 죽었지, 구차하게 살기 위하여 아첨하거나 투항하지 않고 의연하게 순국하셨다고 전한다. 특히 백화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에서는 김상휘(金商暉), 홍기춘(洪奇春), 이순하(李順夏) 등 동학농민혁명군 수백 명을 붙잡아다 놓고 십여 명씩 포승으로 한 줄씩 묶어 목을 졸라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였다. 눈알이 빠지고, 배가 터져 창자가 나오고, 목이 잘린 시체가 쌓이거나 여기 저기 흩어졌다. 관군과 왜군들은 시체를 일일이 헤쳐 보면서 혹 산 사람이 있으면 확인 사살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겨우 피신한 동학농민혁명군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이 산 북쪽 "모래기재에서도 관군과 왜군의 복병(伏兵)들에 의해 동학농민군 수 백명이 학살되었고, 이 밖에도 태안여고 개울, 샘골마을, 남문리 냇가, 정주내 등 여러 곳에서 잔인하게 살육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민가에 방화하였다고 한다. 특히 교장바위는 선지피로 물들고 글자 그대로 시산혈해였다고 전한다. 이 교장바위 부근은 도살장을 방불할 정도로 처참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비극적인 이 바위를 교장바위라고 후손들은 전하고 있다. 즉 목을 졸라 죽인다는 교살(絞殺)과 몽둥이로 때려죽인다는 장살(杖殺)을 줄여서 교장(絞杖)이라 하여 이 바위를 태안 사람들은 "교장바위"라고 이름 지어 현재까지 부르고 있다.

토성산(吐城山) 근흥면 수룡리

이 토성산은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和順)에 있으며 산 봉우리에 백제(百濟)시대의 성터가 있다.

백화산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수백 명의 동학농민혁명군들은 이곳 토성산성에 숨어들었다.

이에 때를 놓칠세라 하고, 관군과 일본군들은 동학농민혁명군의 뿌리를 뽑기 위해 혁명에 가담한자를 철저히 색출하는데 주력했다. 기진맥진한 수많은 동학농민혁명군을 붙잡아다가 총 개머리로 머리를 내리쳐 잔인하게 죽이고 머리를 잘라서 산 아래로 내던져 밑에서 머리를 주어다가 창에 꿰어 들고 다니거나, 집 추녀에 매달려 놓았다. 칼로 배를 찔러 내장을 뽑아 소나무가지에 매달고, 산 사람을 집에 가두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토성산성은 도살장을 방불케 했다. '사람 살려 달라' 고 애원하는 소리 '아이고 머니 나 죽는다' 울부짖는 소리, 몽둥이로 때려죽이는 소리와 총소리가 요란하게 진동하고 화약 냄새와 죽은 시체에서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이 참상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눈을 뜨고 차마 볼 수 없었다고 전한다.

이 토성산은 기포지로 당시 동학농민혁명군 중에는 김철제(金哲濟)와 김정제(金貞濟)를 비롯하여 김용근(金容根) 김용정(金容定)형제와 김양권(金良權) 문동하(文東夏)등이 근서면 안흥면 원일면 원이면 소근면 등지에서 모인 약 600여 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을 이끌고, 태안 서산 해미 전투와 이어서 홍주성 전투까지 참전했다가 패전하여 집에 와서 숨어 지냈다. 유회군(儒會軍)과 관군의 첩자가 된 자의 밀고에 의하여 잡혀, 살을 에는 혹한 속에 김철재, 김정제, 김용근, 김용정 등이 토성산성으로 끌려가 작두로 처형당했다고 한다. 이렇게 네 사람 모두가 '동지 달 보름날' 에 제삿날이고, 김양권은 구사일생으로 가의도로 피신하여 화를 면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철제, 김용근이 거주하던 가옥은 관군들이 불태워버리고 양곡과 소, 돼지, 닭을 약탈해 갔다고 한다.

목네미샘 이원면 사창3리

동학농민혁명군들은 홍주성 전투 그리고 11월 7일 해미전투와 8일 서산(梅峴) 전투에서 패전하고 태안 백화산에서 관군과 일본군의 포위망을 벗어나 간신히 살아남아 이원면 사창리 부근에서 숨어 있다가 관군에 체포된 수 십명을 작두로 목을 잘라 "목네미샘" 구덩이에 던졌다고 한다.

통개 이원면 관리

동학농민혁명군들은 홍주성 전투에 참패하고 사방으로 흩어져 관군의 경계망을 뚫고 간신히 집으로 돌아와 산속에 숨거나, 또는 토굴을 파고 숨어 지내다가 관군과 유회군의 색출에 의하여 체포된 78명의 동학농민혁명군을 "통개"에서 일본군이 집단 총살했다고 한다.

甲午東學農民革命 殉國 參與者 名簿

甲午東學農民革命 殉國 參與者 名簿

성 명	주 소	순국장소	전사내용	비 고
이치봉(李致奉)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근흥 수룡(토성산)	작두형	
문구석(文龜錫)	〃	태안읍 정주내	총살	文敬植 조부
최덕석(崔德錫)	〃	백화산 (교장(絞杖)바위)	〃	
조응칠(曺應七)	〃	〃	〃	조사학 조부
박기만(朴貴萬)	〃	〃	〃	朴秉泰 증조부
문재석(文在錫)	〃	〃	〃	
최연배(崔連培)	〃	〃	〃	
최정여(崔貞餘)	〃	〃	〃	
최맹칠(崔孟七)	〃	〃	〃	
최주안(崔周安)	〃	태안	전사	
박 홍(朴 洪)	〃		〃	
김하열(金河烈)	〃		〃	
김준칠(金俊七)	〃		〃	
조우삼(曺禹三)	〃		〃	
김보현(金甫鉉)	〃		〃	
김성삼(金成三)	〃		〃	
조석보(曺錫普)	〃		〃	
김희천(金禧天)	〃	태안	작두형	金義坤 조부
조치우(曺致雨)	〃		전사	
최임순(最任春)	〃		〃	
박양필(朴良泌)	〃		〃	
최춘봉(崔春鳳)	〃	태안	총살	최종복 조부
오선초(吳先楚)	〃	태안	〃	吳三福 조부
조병로(曺秉魯)	〃	해미성	작두형	조영범 고조부
최덕창(崔德蒼)	〃	홍주성	〃	
조석남(曺錫男)	〃	〃	총살	
조석민(曺錫敏)	:	〃	〃	
박운근(朴雲根)	〃	〃	전사	
최덕원(崔德元)	〃	〃	〃	최종복 조부
김희준(金熙俊)	〃	〃	〃	
김기두(金起斗)	〃	〃	〃	
김풍두(金豊斗)	〃	〃	〃	
문성열(文聖烈)	〃	〃	〃	
김명필(金明必)	〃	〃	도피中익사	
민춘화(閔春化)	〃	〃	총살	
문장헌(文章憲)	태안군 원북면 양산리	〃	전사	
김상곤(金商坤)	〃 이곡리	〃	〃	
허주백(許周佰)	〃	〃	전사	
조택현(趙宅現)	〃	〃	〃	
허민보(許民甫)	〃	〃	〃	
김달회(金達回)	〃	〃	〃	
문종문(文鐘文)	〃	〃	〃	

성 명	주 소	순국장소	전사내용	비 고
가문현(賈武鉉)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홍주성	전사	
가덕신(賈德伸)	〃	태안 백화산 교장바위	총살	
가정안(賈正安)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	홍주성	전사	
가순칠(賈順七)	〃		총살	
가평중(賈平仲)	〃		전사	
이성근(李成根)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		총살	
문학서(文學西)	태안군 원북면 원동		〃	
최영식(崔榮植)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	
최성언(崔聖彦)	〃		〃	
김기안(金其安)	〃		〃	
정치명(鄭致命)	〃		전사	
최춘봉(崔春奉)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	
최맹춘(崔孟春)	〃		〃	
장성국(張聖國)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	
조화현(趙和顯)	〃		〃	
엄수안(嚴水安)	〃		〃	
손병공(孫炳公)	〃		〃	
고낙화(高樂華)	〃		총살	
장재환(張載煥)	〃		전사	
장의하(張義河)	:		〃	
장명재(張明才)	〃		〃	
장공삼(張公三)	〃		〃	
장석봉(張碩奉)	〃		〃	
장기환(張基煥)	태안군 원북면 청산리		〃	
김공근(金公根)	〃		〃	
강정오(姜正五)	〃		〃	
서성근(徐成根)	〃		〃	
김익을(金益乙)	〃		〃	
전경로(全慶魯)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홍주성	총상사망	金玉成 증조부
김창옥(金昌玉)	〃	〃	전사	
김상오(金尚五)	태안군 이원면 관리		〃	
문재홍(文載弘)	〃		〃	
윤정우(尹定雨)	〃		〃	
차맹교(車孟敎)	〃		〃	
안맹진(安孟眞)	〃		총살	
안공보(安公保)	〃		전사	
손경조(孫慶助)	〃		총살	
김 웅(金 雄)	〃		전사	
손인화(孫仁化)	〃		총살	
손난교(孫煖敎)	〃		〃	
정행구(鄭行龜)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전사	
정찬문(鄭瓚文)	〃		〃	
정행우(鄭行佑)	〃		〃	
정행운(鄭行雲)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전사	
문유혁(文瑜赫)	태안군 남면 달산리		〃	
문근필(文謹弼)	〃		〃	
문사형(文仕形)	〃		〃	

성 명	주 소	순국장소	전사내용	비 고
문영진(文榮震)	〃		〃	
김경재(金敬在)	태아군 남면 양잠리		〃	
가재희(賈在熙)	〃		〃	
가청일(賈淸一)	〃		〃	
김병순(金炳順)	태안군 안면읍 정당리		〃	
김자연(金自然)	〃		〃	
우영순(禹永淳)	〃		〃	
조학순(曺學淳)	〃		〃	
김석현(金錫鉉)	〃		〃	
임원숙(林元淑)	〃		〃	
김신오(金信五)	〃		〃	
가정로(賈正魯)	〃		〃	
박성심(朴聖心)	〃		총살	
박내춘(朴來春)	〃		〃	
주세순(朱世淳)	〃		전사	
이치호(李致鎬)	〃		〃	
주경순(朱慶淳)	〃		〃	
김월성(金月城)	태안군 안면읍 오사		〃	
이치산(李致山)	〃		〃	
하산길(河山吉)	태안군 안면읍 자월		〃	
김대갑(金大甲)	〃		〃	
김은옥(金殷玉)	〃		〃	
이여조(李汝曺)	서산시 부석면		〃	
김경정(金敬程)	서산시 부석면 칠전리		〃	金完根 조부
김경모(金敬模)	서산시 부석면 송시리		〃	
강문선(姜文善)	〃		〃	
유상태(柳相泰)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	
유성덕(柳聖德)	〃		〃	
유강월(柳姜月)	〃		전사	
유상신(柳相新)	〃		〃	
유익곤(柳翼坤)	〃		〃	
유익룡(柳翼龍)	〃		〃	
유상건(柳相建)	〃		〃	
맹국효(孟國孝)	〃		〃	
지양직(池良直)	〃		〃	
장세원(張世源)	서산시 팔봉면 진장리		총살	
박전달(朴傳達)	서산시 팔봉면 호리		전사	
박인화(朴麟和)	서산시 팔봉면 흑석리		〃	
유양진(柳養辰)	서산시 팔봉면 덕송리		〃	
이사심(李士心)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전사	
정상해(鄭上海)	〃		〃	
정행진(鄭行鎭)	〃		〃	
김양집(金良執)	〃		〃	
정행택(鄭行澤)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頭上, 火刑	
정행구(鄭行九)	〃		총살	
정건숙(鄭建淑)	〃		전사	
정여수(鄭汝水)	〃		〃	

성 명	주 소	순국장소	전사내용	비 고
김명집(金明執)	〃		〃	
정성함(鄭聖咸)	〃		〃	
정재봉(鄭在奉)	〃		〃	
정양범(鄭良凡)	〃		〃	
정여장(鄭汝將)	〃		〃	
조재현(趙載顯)	〃		총살	
김중국(金仲局)	〃		〃	
김사원(金士元)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전사	김순환 조부
박종률(朴鍾律)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	
김원효(金元孝)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총살	
변동호(邊東鎬)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전사	
변동식(邊東植)	〃		〃	
강인성(姜仁成)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	강화범 조부
박정백(朴正白)	〃		〃	
정백만(鄭白萬)	태안군 소원면 파도리		총살	
신석제(申錫濟)	태안군 근흥면 두야리		전사	
김용근(金容根)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근흥 수룡(토성산)	작두형	金鍾淑 조부
김용정(金容定)	〃		〃	〃
김철제(金哲濟)	〃		〃	金 焮 조부
김정제(金貞濟)	〃		〃	〃
한용이(韓容履)	태안군 남면		전사	
조충현(趙忠顯)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작두형	
김업춘(金業春)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	백화산 (교장(絞杖)바위)	총살	
김광달(金廣達)	〃	〃	〃	
김회운(金會運)	〃		전사	
가정로(賈正魯)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백화산 (교장(絞杖)바위)	총살	
박성묵(朴性默)	태아군 근흥면 용신리	근흥 수룡(토성산)	작두형	
박성천(朴性天)	〃	〃	〃	
추여첨(秋汝添)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서산	전사	
추승기(秋勝琦)	〃	〃	〃	
추선봉(秋先鳳)	〃	〃	〃	
임원숙(林元淑)	서산시 성연면 오사리	〃	〃	
유정복(柳正福)	서산시 성연면 고남리	〃	〃	
유도성(柳道成)	〃	〃	〃	
이사심(李士心)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홍주성	〃	
송시운(宋時運)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홍주성	전사	
봉상배(奉相培)	〃	서산	〃	
강인경(姜仁慶)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	〃	
김명숙(金明淑)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	〃	
박근보(朴根甫)	서산시 지곡면 대요리	〃	〃	
박유경(朴儒敬	〃	〃		
김황탈(金黃脫)	〃	〃		
이범현(李凡顯)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		
손모축(孫募丑)	태안군 이원면 관리	홍주성		
손여상(孫余尙)	〃	태안		
손윤궁(孫允弓)	〃	〃		
조병학(趙炳學)	〃	〃		

성 명	주 소	순국장소	전사내용	비 고
박후산(朴厚山)	〃	〃		
손성운(孫聖云)	〃	〃		
박완범(朴完凡)	〃	〃		
최선필(崔先必)	〃	〃		
정선권(鄭孫權)	〃	〃		
최중법(崔仲法)	〃	〃		
나성삼(羅聖三)	〃	〃		
손덕화(孫德化)	〃	〃		
송강여(宋康汝)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		
손선우(孫善佑)	태안군 이원면 관리	〃		
송윤여(宋允汝)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		
송용여(宋容汝)	〃	〃		
송수연(宋水年)	〃	〃		
송성준(宋聖俊)	〃	〃		
박경천(朴敬天)	〃	〃		
김경운(金敬云)	〃	〃		
강형보(姜兄甫)	〃	〃		
김양삼(金良三)	〃	〃		
이복동(李福同)	〃	〃		
안영덕(安永德)	〃	〃		
김지서(金智西)	〃	〃		
안경여(安敬汝)	〃	〃		
조후덕(趙厚德)	〃	〃		
윤세황(尹世璜)	〃	〃	행방불명	윤태경 조부
이성칠(李性七)	〃	〃		
안성보(安聖保)	태안군 이원면 내리	홍주성		
안군보(安君保)	〃	〃		
정천신(鄭千信)	〃	〃		
정군필(鄭君弼)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		
조명주(趙明周)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		
조원하(趙元夏)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홍주성		
김익심(金益三)	태안군 이원면 청산리	〃		
장기연(張基連)	〃	〃		
김공근(金公根)	〃	〃		
노홍우(盧弘愚)	서산시 양대동	〃		
윤성섭(尹聖燮)	〃	〃		
노중오(盧仲五)	서산시 양대동	〃		
유성심(柳聖心)	서산시 성남동	〃		
한영교(韓永敎)	서산시 장리	〃		
이여가(李汝賈)	서산시 부석면	〃		
유상태(柳相泰)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	서산		
유상신(柳相新)	〃	〃		
안재봉(安載鳳)	서산시 팔봉면 양길리	홍주성		
안재순(安載淳)	〃	서산		
박상룡(朴相龍)	〃	〃		
김사원(金士元)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		
김중국(金仲局)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		

성 명	주 소	순국장소	전사내용	비 고
김은옥(金殷玉)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서산		
문종운(文鍾云)	태안군 원북면 양산리	태안		
김원회(金遠回)	〃	〃		
김상하(金商夏)	서산시 음암면	홍주성		접주
이필수(李弼秀)	서산시 운산면	〃		접사
이치옥(李致玉)	서산시 인지면	서산		접주
성채용(成采龍)	서산시 오남동	해미		
성운성(成雲城)	서산시 오남동	〃		
장세원(張世原)	서산시 팔봉면	〃		
손세헌(孫世憲)	서산시 지곡면	홍주성		
이회운(李會運)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		
지양식(池良植)	서산시 팔봉면 대황리	해미		
김학인(金學仁)	서산시 고북면 양천리	홍주성		
김재홍(金載洪)	서산시 고북면 남정리	〃		
조의하(趙義河)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	전사	조재동 종조부
조이현(趙利顯)	〃	〃	〃	〃
지향연(池香蓮)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	〃	조규현
윤세원(尹世元)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		尹奎相
윤세황(尹世璜)	〃	〃		尹泰慶
안인묵(安仁默)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		安鍾烈
박기만(朴基萬)	〃	〃		朴秉泰
문향묵(文香默)	태안군 남면 몽산리	〃		文濟彬
문상욱(文相旭)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		文光錄
문장혁(文章赫)	〃	〃		文榮一
김명필(金明必)	〃	〃		金甲得
안익순(安益淳)	태안군이원면 내리	홍주성		安庸煥 조부
문장로(文章魯)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태안 서산 홍주성		文英植 증조부
김상배(金相培)	태안군 원북면 황촌리	〃		金鍾洙
안종구(安鍾龜)	태안군 이원면 내리	〃		安相允
홍성필(洪聖弼)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	〃	전사	洪斗杓
가병기(賈秉璣)	태안군 남면 양잠리	〃	〃	賈昌鉉 증조부
김양권(金良權)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태안 홍주성		金榮圭 조부
가병항(賈秉亢)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	태안읍 모래기재	총살	賈在善 조부
전덕용(全浩鏞)	태안군 원북면 반게리	홍주성	전사	전화영 증조부
박성묵(朴成甫)	태안군 소원면 시목리	태안, 서산, 홍주성	〃	박영진 조부
박공양(朴性天)公良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	〃	박갑진 조부
가병일(賈秉一)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홍주성	〃	가재호 종조부
장기덕(張基德)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	〃	張東元
가병석(賈秉錫)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	〃	賈秀鉉 증조부
허수욱(許燧旭	서산시 석남동	〃	〃	許光洙 증조부
김상권(金商權)	〃	〃	〃	金奭煥 증조부
박용석(朴用石)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천안 세성산(細城山)	생사불명	朴明俊 조부
권 철(權 喆)	서산시 부석면 대부리	서산, 홍주성		權昌濟 조부
강운재(姜雲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태안	전사	姜萬淳 조부
류응률(柳應律)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해미, 홍주성	〃	柳正男 증조부

計 275명

원암 문원덕(源菴 文源德)의 행장(行狀)

■ 주요약력

○ 원암 문원덕선생은 1915년(乙卯) 11월 10일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갑오동학혁명군 북접 지도자(접주) 문장로(文章魯)의 손자이며 항일운동과 3 · 1운동 당시 예산군 주모자인 성암 문병석(成菴 文秉錫)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 1924년 천도교에 입교.

○ 1931년 천도교 야학단을 조직하여 예산, 당진, 합덕 등지의 애국계몽운동과 문맹퇴치운동을 주도함.

○ 1935년 천도교 예산교구공선원(共宣員) 취임후 내포지역 애국계몽운동 주도.

○ 1944년 동아일보 예산지국 주재기자로 언론운동에 투신.

○ 1946년 천도교 종학원을 수료하고 예산교구 순회교사 취임.
(천도교 종학원-의암 손병희선생께서 천도교의교리와 민족혼을 심어 훗날 지도자를 육성하는 교육기관)

○ 1959년 난민정착소(6.25전쟁후 황해도피난민 자활사업) 소장 취임.

○ 1964년 동학정신선양회를 조직하고 충남지부장에 취임, 충청서부지역의 갑오동학혁명운동사료를 발굴하여 가담자, 후손 등을 찾아 역사채록 활동.
(갑오동학혁명군 순도순국자 명부제작)

○ 1965년 전국 최초로 충남 태안극장에서 제1회 갑오동학혁명군 위령제를 전국 규모로 거행하고 동년 북접 최초 발상지인 원북면 방갈리(가시내)에서 유족등을 모시고 제2회 위령제를 거행함.

○ 1971년 예산의 산업대학교 강당에서 제3회 갑오동학혁명군의 위령제를 거행.

○ 1972년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건립 계획 착수.

○ 1975년 2월 갑오동학혁명군추모탑 건립추진위원회 결성과 함께 위원장을 맡아 유족 및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추모탑 건립에 착수함.

○ 1978년 10월2일 충남 태안군 백화산에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을 건립하고 제막식을 거행함.

○ 1986년 향년 71세로 타계(還元).

○ 1992년 천도교 선도사(宣道師)로 추서(追敍).

■ 사료발굴

○ 1967년 〔문장준 역사(文章峻 歷史)〕 발굴.

○ 1973년 〔창령후인 조석헌 역사(昌寧后人 曺錫憲 歷史)〕 발굴.

○ 1976년 토성산(吐城山 : 근흥면 수룡리和順)에서 동학농민혁명군을 처형하던 작두(斫刀)을 발굴(현재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전시 보관중).

■ 원암 문원덕 선생의 업적 요약

원암 선생의 조부(문장로)는 원래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갈머리 마을이다. 내포지역 최초로 동학을 비밀리에 전수받아 포덕하였으며 갑오동학혁명 당시에는 태안접주로써 항일전투에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우며 1894년 11월 홍성전투에 참패를 하자 고향인 태안으로 퇴각하여 체포령이 내려 가솔들을 이끌고 안면도, 광천, 공주를 거쳐 천안 광덕산등지에서 토굴생활로 10여년을 변성명하고 피신하였다. 한일합방 이후 체포령이 느슨해지자 충남 예산군 신암면 탄중리로 이주하여 생활하시다 1919년 환원(별세)하시다.

원암 선생의 부친 성암 문병석 선생은 천도교 장로로 충청내포지역 연원의 수장으로 정신적 지주였으며 일제하 항일투쟁의 선봉에서 애국계몽운동과 교육운동을 병행하며 천도교 예산교구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3·1 운동 당시 예산, 아산, 당진지역의 천도교인들이 주축으로 한 기미독립운동을 비밀리에 지휘하면서 운동 당시 주동자로 체포되어 일경의 모진 고문 등으로 일생을 병마와 싸우면서도 민족사상과 동학천도교의 인내천 진리를 몸소 실천하시다.

이러한 가풍에서 자란 원암 문원덕은 갑오동학혁명운동의 현창사업과 선열의 바른 역사를 세우고 알리는 사업을 일생의 과업으로 삼아 그 어느누구도 관심을 기우리지 않는 우리 향토의 항일투쟁운동을 밝히는 사업에 투신하였다. 20여년 동안 원암께서 발굴하여 정리한 갑오동학혁명군 순교방명록은 유일한 내포 북접지역의 생생한 사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억울하게 순도순국한 혁명군의 원혼을 풀어 드리고자 1969년 전국 최초로 충남 태안군 태안극장에서 제1회 위령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고 식후행사로 동아시아 역사연구의 석학인 벤자민 B. 웜스 박사를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같은해 가을에는 북접기포의 시원지인 원북면 방갈리에서 유족들과 각계계층의 인사들을 모시고 성대히 거행하면서 1971년 북접 혁명군이 홍성전투를 앞두고 대도소를 세워 수만명이 운집했던 유서깊은 예산에서 제3회 위령제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위령제는 우리지역에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면서 지역문화 운동과 민족의식 고취에 일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가 계획하고 건립한 백화산의 위령탑은 무일푼으로 시작한 무모한 사업이였으나 원암께서 주창한 애국선열의 현창사업에 대하여 동양학원과 유족,각계의 성원과 관심을 모아 이룬 피땀이 서린 추모탑으로 세워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한 선각자의 노력으로 우리향토의 숨겨진 값진 역사를 바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도순국한 선열의 향토사랑과 희생을 널리 현창하고 되새기는 자랑을 간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룰수 있었던 것은 생전의 원암께서 되뇌이던 말씀처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내 몸을 초개처럼 던진 선열께서 나를 시키시는 것이다"라는 그의 희생과 열정이 오늘의 자랑스런 태안의 역사를 열게 되었다.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군 추도·위령사업 발자취

1965년			충남 태안의 원암 문원덕 선생께서 갑오동학혁명 북접기포 지역 (태안 서산 당진 홍성 예산 아산)의 사료발굴 활동 및 유족회 결성
1969년			태안극장에서 제1회 갑오동학혁명순국선열 위령제 봉행
1972년			동학혁명북접기포지인 원북면 방갈리에서 제2회 위령제 봉행
1974년			충남 예산산업대 강당에서 제3회 순국선열 위령제 봉행
1977년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건립추진위원회 결성
1979년			갑오동학혁명군 추모탑을 태안백화산록에 건립 제막식
1991년			제5회 순국선열 위령제 및 역사강연회
1994년			제6회 순국선열 위령제 및 추모국악예술공연
1997년			향토역사강연회
1997년			제7회 순국선열 위령제 및 국악예술공연
1998년			제8회 순국선열 위령제를 태안지역 추모대제로 명칭 변경
1998년	12월	15일	태안지역 유족회 제2대 김의곤 회장 추대
1999년	10월	9일	제9회 추모대제
2000년	4월	23일	정읍백산봉기 106회 기념대회 학생 백일장 입선
2000년	10월		갑오동학혁명군 위령탑 일부 보수
2000년	11월	3일	제10회 동학혁명추모대제 및 민속문화행사
2001년	4월	8일	북접동학농민혁명기포 발상지 (화력발전소) 현지답사
2001년	4월	29일	군민의 날 동학혁명 가장행렬 및 홍보 캠페인
2001년	4월		동학농만군 학살 장소 답사(사창리 목네미샘, 관리통개).
2001년	11월		제11회 추모대제 민속문화 행사
2001년			태안여중학생 강연회
2001년	12월	4일	갑오동학혁명군 명예회복과 서훈 학술세미나 참여.
2002년	3월	18일	국회 동학혁명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학술세미나 참여
2002년	5월	24일	전주역사박물관 개관기념 학술대회 참여
2002년	7월	18일	공주우금티 동학혁명 전적지 훼손반대 기자회견 참여
2002년	10월	29일	제12회 추모대제
2002년	11월	9일	충남발전연구회 내포연구단 동학혁명군 유적지 답사
2002년	12월	10일	제2차 동학혁명군 명예회복특별법대책위원회 참여
2003년	1월		11인 제3차 특별법 대책위원회 대전 유성 참여
2003년	4월	10일	동학 보은집회 110주년 기념 심포지움 참여
2003년	5월	1일	근흥 수룡리 토성산 제1회 진혼제
2003년	7월	14일	국회 동학농민혁명비교 학술세미나 참여
2003년	8월	27일	동학농민혁명유적지 황토현 답사
2003년	10월		백화산 동학농민혁명 위령탑 주변 정비
2003년	10월	29일	동학농민혁명군 추모대제
2003년	11월		동학농민혁명 역사광장 모금바자회
2004년	2월	9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2004년	11월	3일	동학농민혁명군 명회회복 기념 학생백일장
2004년	6월	10일	KBS 동학농민혁명, 다큐멘터리 제작 방영
2004년	10월	29일	태안지역동학농민혁명군 위령제 거행
2005년	3월	30일	태안지역동학농민혁명사를 SBS에서 방영

태안지역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회원

(가나다순)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가명현	대전시 갈마동 갈마A101-205	524-0870	봉재훈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	662-9187
가수현	태안군 남면 삼성초등학교	672-2062	안광훈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0-4강남벨라스 A2-102	674-7089
가순옥	태안군 읍 도내리 958	011-406-5941	안상윤	태안군 이원면 내리 874	675-7877
가장진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 1구		안용환	태안군 이원면 내리 933	675-7880
가재선	태안군 원북면 동해2구 169		안응순	태안군 이원면 내리	
가재운	태안군 원북면 동해리 359	672-4406	안종수	서산시 석림동 689-1	665-7079
가재호	태안군 동문리 555		안종열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49	674-7073
가천식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674-5837	오삼복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276	672-5365
강희범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674-6899	유정남	경기도고양시 덕양구 행진3동 905 햇빛마을 2104-1702	011-9038-8724
권창재	서산시 동문동990	665-2138	윤규상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1139	672-8050
김갑득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34	674-7086	윤태경	태안군 이원면 당산리 3구	672-7921
김석환	인천시 남구 관교동 13-6 삼원A 103-1503	032-431-6267	이태화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631	
김순환	태안군 읍 동문리 298	674-2212	장동원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718	
김승수	서산시 석림동 642-18	665-1831	장인석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672-8193
김영규	태안군 읍 남문리 169	016-879-2851	전병욱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김의곤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674-7124	전옥성	태안군 원북면 마산리 794	011-248-0843
김종수	서산시 석림동 729-5	662-2250	전화영	서산시 동문동 137-2 현대A 102-1407	011-403-2061
김종숙	태안군 읍 동문리 282-10	674-2813	정규하	태안군 이원면 관리 3구	672-7994
김주태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37	011-9834-7107	정동의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김 흔	태안군 근흥면 수룡리	672-6192	정동훈	태안군 이원면 내리	
문경식	인천 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2 한양2차A 22동 303호		조계호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674-7105
문광록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05	674-7071	조규하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1구	
문병찬	태안군 동문리 693-8		조서학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303	674-5546
문시향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05	674-7078	조영범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519	011-330-3374
문영식	태안군 읍 남문4리 318-2	673-2579	조재동	태안군 이원면 포지리 2구	
문영일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04	674-7077	최동혁	태안군 근흥면 정죽리	675-1267
문제빈	태안군 남면 몽산리 685-5	672-2938	최병복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359	674-7152
문창헌	태안군 이원면 사창리		최병익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 (사망)	662-9815
문형식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274	010-4726-3198	최정복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구	
문흥식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80 한양A 206-202호		최제열	서산시 지곡면 장현리	662-7782
박광태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 118	674-7079	한영수	서울시 여의도동 12-1 삼도오피스텔 605	02-2643-4510
박명준	천안시 성거읍 천흥리 263	662-2340	허광수	태안군 원북면 이곡리 61	672-4477
박병태	태안군 원북면 방갈리118	674-7089	홍노석	홍성군 홍동면 신기리 반교 269	011-9826-7194
박영진	태안군 근흥면 용신리 432-6	673-0010	홍두표	서산시 지곡면 환성2구 6655	662-9355

태안지역 갑오동학농민혁명 자료집

◆ 발행일 : 2005년 4월 28일
◆ 발행인 : (사)동학농민혁명태안군기념사업회
◆ 발행처 : 충남 태안군 읍 남문4리 318-2
(사)동학농민혁명태안기념사업회
연락처 (041) 675-5228
이메일 : 1894moon@hanmir.com
◆ 기획제작 : 한솔인쇄기획미디어(041-674-0308)

◆ 편집위원 : 김영규, 조민준, 문영식, 김한두